

－ 地方議會議員 國際化 마인드 제고를 위한 －
2011 海外研修 報告書

海雲臺區 議會

목 차

제1장. 연수 개요

- 1 연수 개요
- 2 연수자 명단
- 3 연수세부 일정

제2장 국가개요

- 1 홍콩
- 2 싱가포르

제3장 공식방문 기관

- 1 홍콩 사회복지부, 노인복지부
- 2 노인 요양시설
- 3 싱가포르 국회
- 4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5.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제4장 연수 결과

- 연수결과 보고서

제5장 구정 접목사례

- 1 쾌적한 어린이도서관 운영
- 2 인공수상스키장 설치
- 3 재래시장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4. 사진으로 보는 구정 접목 사례
- 5 개인별 연수결과 보고서

제6장 행정사항

- 地方議會 國際化 마인드 제고를 위한 -
2011 海外研修 報告書

2011년 學習型 海外研修를 통해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경험하여 세계화 마인드 제고와 선진 의정활동 의식을 함양하며,
- 해운대구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모색과 벤치마킹은 물론 열린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로 의원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던 2011년 해외연수 결과 보고임

1. 연수개요

1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1. 7.11(월)~ 7.16(토) ▷ 4박 6일
- 연수 대상국 : 홍콩, 싱가포르,
- 참여대상 : 17명(의원 13, 수행직원 4)
- 연수방법
- 주요 시찰지(기관방문 중심으로)
 - 홍콩
 - 노인복지부, 사회복지부 및 양로시설 공식 방문 ▶ 노인복지시설 행정사항 등 비교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 산업 육성정책 시찰 ▶ 야간 경관, 재래시장 등
 -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 비교시찰
 - 도시기반시설(도시개발전시관, 국립도서관(어린이 도서관)등)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 산업 육성정책 시찰 ▶ 스타거리 등

2 연수자 명단

직 책	성 명			비 고
	한 글	漢 字	NAME	
의장	라외순	羅外順	RA-WAISOOON	
부의장	윤병주	尹炳柱	yun-byungJU	
의원	김성래	金星來	KIM-SUNGRAE	
“	최준식	崔竣植	CHOI-JOONSIK	
“	정성철	鄭成澈	JEONG-SEONG-CHEOL	
“	이안호	李岸鎬	LEE-ANHO	
“	최성관	崔盛觀	CHOI-SEONGKWAN	
“	김진영	金眞英	KIM-JINYOUNG	
“	홍성운	洪性雲	HONG-SEONGWOON	
“	이명원	李明源	LEE-MYUNGWON	
“	이상희	李相姬	LEE-SANGHEE	
“	심형균	沈馨均	SHIM-HYOUNGKYOUN	
“	이상기	李相基	LEE-SANGKI	
의정팀장	서말숙	徐末淑	SEO MAL SUG	
직 원	이용헌	李勇憲	LEE-YONG-HUN	
“	장미경	張美京	JANG MIKUNG	
“	박진우	朴辰禹	park jin woo	

3

연수일정

월 일	장 소	교통수단	시 간	일 정
1일차 7/11 (월)	부 산 홍 콩	버 스 항 공 전용버스	00:00 06:00 09:00 11:50	구청 집결 후 출발 인천공항 도착 인천 국제 공항 출발 홍콩 도착 (3시간35분소요예상)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 정책과 관광육성 정책 비교시찰 <input type="checkbox"/> 재래시장 시찰 및 상업 쇼핑몰 조성 현황 실태조사 ▶ 해운대시장등 우리구 재래시장과의 비교시찰
				호텔 투숙(의원 워크샵)
2일차 7/12 (화)	홍 콩	전용버스	09:30 13:00	■ 공식방문1 : 홍콩 노동복지부 및 사회복지부 ○ 장기적 보호 필요 노인 정책 실태 파악 ○ 노인시설 및 프로그램 연구 분석 ■ 공식방문2 : Sheng Kung Hui Li Ka Shing Care and Attention Home for the Elderly ○ 노인요양센터 현장 방문 실태 파악 ○ 사회보장제도 운영시스템 비교분석 <input type="checkbox"/> 도시기반시설 실태 조사(녹지,도시디자인 등) <input type="checkbox"/> 야관 경관 조명 현황 실태조사
				호텔 투숙(의원 워크샵)
3일차 7/13(수)	홍 콩 싱가폴	전용버스 항 공	09:00 11:20 15:05	<input type="checkbox"/>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및 문화 탐방 ○ 도로교통 운용실태 및 주차편의시설 시찰 ○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등 설치 실태 시찰 ○ 장애, 노약자를 위한 도심기반운영실태 시찰 홍콩 출발 싱가포르 도착
				호텔 투숙(의원 워크샵)

4일차 7/14 (목)	싱가폴	전용버스	09:00 14:30 16:30	<input type="checkbox"/>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및 문화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 운용실태 및 주차편의시설 시찰 ○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등 설치 실태 시찰 ○ 장애, 노약자를 위한 도심기반운영실태 시찰 ■ 공식방문3 : 싱가포르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제도 비교분석 ○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례 파악 등 ■ 공식방문4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어린이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도서관 운용 및 편의시설 시찰
7/15일 (금)	싱가폴	전용버스	10:00 15:00 22:40	<input type="checkbox"/>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및 문화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벵골시장, 어린이 도서관 운용 및 편의시설 시찰 ○ 도심 공원,녹지,디자인, 문화 실태 시찰 ○ 해양레저스포츠, 해안 방재시스템 운용실태 시찰 ■ 특별시찰 <input type="checkbox"/>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도시 재개발 공사 싱가폴 국제공항 출발
7/16일 (토)	싱가폴 인 천 부 산	항 공	06:00 08:30 09:25	인천공항 도착 김포공항 출발 김해공항 도착

2. 연수국가 개요

홍콩

천가지 표정이 있는 나라



홍콩은 1997년 6월 30일 자정을 기해 약 150여 년간 이어졌던 영국 식민지 령에 종식을 고하고 중국에 귀속되어 홍콩 특별행정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반환 이후에도 홍콩은 예전과 변함없는 명성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좁은 면적을 이용해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집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의 교통시스템과 완벽한 영업서비스로 단기체류나 장기체류하는 방문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한다.

◆면적 : 1,101km²(서울의 약 1.8배) (홍콩섬 80km², 구룡 47km², 신계지 및 약 235개 섬 974km²)

◆기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 (연평균 22℃ ~ 23℃)

◆인구 : 7,041,000명(2006년 기준)

◆언어 : 영어, 중국어(광둥어)

◆종교 : 불교, 도교, 기독교 등

구룡반도와 홍콩섬 등의 도서에는 신석기시대 (新石器時代)부터 인간이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 있고 후한(後漢)시대의 분묘, 송제(宋帝)의 묘 등이 있어 일찍부터 이 곳에 중국인들이 정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41년 1월 아편전쟁(阿片戰爭)을 계기로 영국이 홍콩섬을 점령하였을 당시에는 소수의 중국인과 수상생활자(水上生活者)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구룡과 신계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곽도시를 이루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842년 영국과 청(淸)나라 사이에 홍콩섬의 영구 할양(割讓)을 인정하는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됨으로써 영국령 식민지 홍콩이 성립하게 되었다. 한때 영국 의회에서는 발전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포기하자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860년의 1차 베이징조약[北京條約]으로 구룡반도를 분할한 데 이어, 1898년 2차 베이징조약으로 신제와 부속도서를 99년 동안 조차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홍콩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1905년에 구룡과 광둥을 잇는 철도가 개통된 데다 물자의 집산지, 해외로 진출하는 화교(華僑)들의 거점으로써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1861년에 약 12만 명이었던 인구가 1939년에는 16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항만·공장 노동자와 도시의 빈민이 불어나고 신해혁명(辛亥革命) 이래 팽배하기 시작한 내셔널리즘과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하여 여러 차례 혼란을 빚었다. 그 중에서도 국공합작(國共合作)으로 이루어진 광둥정권[廣東政權]의 지도하에 벌어진 총파업사태는 16개월(1925~26)동안이나 계속되었다.

1941~1945년에는 일본군에게 점령되었으나 일본이 패망한 뒤 1946년 5월부터는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9년 10월에는 공산정권이 성립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가 빚어져 영국군이 급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 1월 영국이 중국을 승인한 데 이어 1963년에는 중국도 '홍콩과 마카오 문제는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상을 유지한다'고 표명하고 1966년 4월의 '구룡폭동', 1967년 5월의 '반영폭동(反英暴動)'도 중국이 개입하지 않은 채 진압되었다. 또한 1972년 영국은 자유중국(타이완) 주재 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과 대사교환 협정을 체결, 홍콩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받았다.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은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하여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155년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이로써 홍콩은 세계 최초의 1국가 2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홍콩은 중국의 대서구(對西歐) 협력의 중계지로서, 근대화를 위한 남쪽 창구로서 기능해왔다.

□ 홍콩의 정치

중국 대륙에서 내전이 시작된 1947년부터 홍콩으로 유출하기 시작한 중국인의 수는 공산정권 수립과 함께 가속화하여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때문에 반공적(反共的) 경향이 강하다. 정치조직으로는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 밑에 정청(政廳)의 각 국(局)과, 자문기관으로 임기 5년의 입법심의회(立法審議會)와 행정참사회(行政參事會)를 두었다. 입법심의회는 12명 이하의 공무원과 13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민간인 가운데 9명은 중국인이었다. 행정참사회는 정원이 12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은 중국인이었다. 사법(司法)은 총독이 임명하는 판사가 관장하였다. 이 밖에 중국계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화민사무국(華民事務局)·신제이민사(新界理民司)·시정국(市政局)이 있으며 이 곳에서는 중국인 간부를 등용하였다.

주민의 유일한 참정권인 시정국의원 선거의 등록 유권자수는 4만 명에 불과하고 투표율도 낮았다. 1984년 12월 조인된 홍콩반환협정으로 중국은 1997년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였는데, 이 협정은 외교·국방 이외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홍콩특별행정구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반환 후 홍콩의 헌법이 될 홍콩기본법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병존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5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0년 9월 10일에 중국 반환 후 두번째로 제2기 입법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또한 그 동안 영국여왕이 임명한 총독이 홍콩을 통치하여 왔으며, 마지막 총독은 크리스 패튼이다. 반환 후에는 임기 5년의 특구행정장관이 지도자가 되며, 초대 행정장관으로는 둥젠화[董建華]이다.

□ 홍콩의 외교

홍콩반환 이후 홍콩정부는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홍콩 정부의 자치범위가 넓다.

97년 6월 20일 중국정부는 97년 7월 1일 이후에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이행하게 될 국제협약 214개를 추인하고 그 리스트를 UN에 정식 통보했다.(127개 조약은 중국과 홍콩이 동시 가입한 조약이며 87개 조약은 홍콩만 가입하고 있는 조약임)

홍콩이 가입해 있는 주요 국제기구는 WTO, UNCATD, WORLD BANK, ESCAP, OECD, APEC, APS, ADB 등이다.

홍콩은 대외관계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홍콩을 핵으로 대만과 중국남부를 포함하는 華南經濟圈이 태동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 대한관계

홍콩의 대한관계는 삼각무역(三角貿易)의 중계지로서 한국의 수출확대 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2000년 대한수입은 108억 달러, 대한수출 13억 달러이다. 현지에 한국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상사 관계로 많은 체류자가 있다.

2007년 현재 한국 교민수 1,662명, 체류자는 4,084명이다.

싱가폴

맛과 멋과 흥겨움이 있는 아시아의 선두



그린 & 크린 시티'로 불리우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폴은 14세기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Singa Pura, 사자의 도시)'로 불리워지다가 영국인들에 의해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1832년에는 영국의 해협 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후 영국 식민지로 환원되었던 싱가폴은 1959년 영국 연방내 자치정부를 설립했으나,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야 비로소 독립 공화국을 설

립하게 되었으며, 117번째로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1964년 싱가포르의 옛 이름인 테마섹 전설과 연관해 '머라이언'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되어 관광청 공식문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인 구 : 4,425,720명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기후, 년평균 26,6℃

◆면 적 : 692.7km²(서울시 605.4km²)

◆주요민족 : 중국계(77.5%), 말레이계(14.2%), 인도계(7.1%), 기타(1.2%)

◆주요언어 :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종 교 : 불교(53.3%), 회교(15.3%), 기독교(12.7%), 힌두교(3.7%)

□ 역사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래플스경(卿)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기지로서 1819년 조호르의 술탄으로부터 사들인 뒤, 영국 식민지로서 자유·중계 무역항이 되었으며, 말레이반도를 비롯하여 인근 여러 나라와 유럽 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1921년에는 영국군의 기지가 설치되었으며, 군사·경제적으로 영국 식민 지배의 핵심적 존재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에 점령당하여 쇼난섬 [昭南島]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종전 후에는 다시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그후 중국인 중심의 반(反)식민지운동이 활발해지고 1959년 6월에는 새 헌법의 공포와 함께 싱가포르에도 자치권이 부여되어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에는 말레이 연방·사바·사라와크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결성하였으나 중앙정부와 대립하여 1965년 8월에 분리 독립하였다.

□ 지리

싱가포르는 본섬 외에 50여개의 조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면적은 692.7km²(서울시 605.4km²)이다 적도로 부터 북쪽으로 137km 떨어져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와는 동서를 잇는 유명한 해상 루트인 말라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조호 수로를 잇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항만 도시국가이다 싱가포르 본섬의 서남부는 암석지대로 저습지가 많고 동부지역은 모래가 많아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 정치

1) 개요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정부로서, 1959년 이래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 PAP)이 집권했다. 그리고 2004년 8월 현 리셴룽 총리 취임 이후 2006. 5. 30 신내각 출범으로 리셴룽 총리가 재취임했다. 리관유 전 총리는 고문장관(Minister Mentor : MM, 內閣資政)으로서 중요한 정책 결정시 영향력을 유지했고 고촉통 전총리는 선임장관 (Senior Minister : SM, 國務資政)직 수임중 2006.5.6 총선에서 PAP 당의 승리로 총 84석의 직선의석 중 82석 차지(득표율 : 66.6%)했다.

《인민행동당(PAP) : 82석, 노동당(WP) : 1석, 싱가포르 민주연합(SDA) : 1석》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임기 6년) 현 S. R. Nathan 대통령이 2005. 9월 대통령으로 재선되었고 S. R. Nathan 대통령은 2006.11.2 제11대 국회개원연설에서 향후 5년간 싱가포르의 국정방향을 "경쟁력 있는 경제 및 포용적 사회"로 설정하였다.

2)주요 정세

인민행동당은 1959년 이래 의회 내에서 야당에 비해 압도적인 의원 당선을 통해 장기집권을 지속하였다. 2001.11월 총선에서도 의회 직선의석 84석중 82석을 확보 현실적으로 정치적 대체세력이 부재하고 야당내부의 분열상이 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행동당이 국민의 불만요소를 파악,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본 정치 구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싱가포르의 선거구는 의원 2인이상 선출의 집단선거구(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 GRC)와 1인 선출의 단독선거구로 구분되나, 집단선거구(GRC)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정당에서 1개 GRC 선출의원수(5-6명)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유력인사를 후보로 내세울 수 없는 군소정당은 GRC 입후보자 등록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2001. 11월 총선의 경우, 9개의 5인선출 GRC와 5개의 6인선출 GRC 및 9개의 단독 선거구 등 총 84석 중 야당은 9개 단독선거구와 5인선출 GRC 4개에 대해서만 입후보자를 등록하기도 했었다.

3) 최근 정치 정세

가) 2001. 11월 총선 실시

2001. 10.25 마감한 입후보 등록에서 직선의석 총 84석 중 야당이 29석에 대해서만 입후보자를 등록하고, 나머지 55석에 대해서는 여당인 인민행동당

(People's Action Party, PAP)의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됨으로써 원내 과반수의석(43석)을 확보, 여당의 재집권이 확정됨. 2001.11.3 실시된 총선에서는 1인선출의 단독선거구 9개와 5인선출의 집단선거구 4개 등 총 29석에 대한 투표가 실시된 바, 단독선거구에 입후보한 야당후보 2명만 당선되고, 나머지 27석에 대해서는 여당후보가 모두 당선됨으로써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기록하였다.. 여당의 득표율은 총 유효투표의 75.3%로써 지난 97년 총선시의 득표율 65%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여당은 직선의석 총 84석 중 82석을 차지하였다.(97년 총선시 여당은 직선의석 83석중 81석 차지) 야당 후보 당선자는 싱가포르 인민당 소속 Chiam See Tong과 노동자당 소속 Low Thia Kiang 등 2명 모두 현역의원이며, 야당이 3석 미만의 의석 획득시 최다득표 야당 입후보자를 의원으로 추천하는 무선거구 의원제도에 따라 야당후보중 최다득표 낙선자인 국민단결당의 Steve Chia 후보가 원내 의석을 차지하였다.

나) 리셴룽 총리체제 출범(2004.8월)

리셴룽 총리가 2004. 8.12 제3대 총리에 취임함에 따라 제1기(59년 자치정부 수립 이후 31년간 집권한 리관유 총리시대)와 제2기(90년 취임이후 14년간 집권한 고축통 총리시대)에 이어 싱가포르의 제3기 정권이 출범함. 2004. 8.12 출범한 신 행정부는 총리실과 14개부로 구성된 바, 총리실 내에는 리셴룽 총리 이외에 선임장관(고축통 전총리), 스승장관(리관유 전선임장관), 2명의 부총리 및 2명의 장관을 두고 있다.

다) 국민의 점증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

정부는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PAP)내 신진인사를 기용하여 이에 대응하였고 이는 신진인사의 기용 및 이들에 의한 유연한 정책도입 등으로 과거에 비해 권위적인 분위기가 대폭 완화되었다.

PAP의 당내 중진인 Tony Tan 부총리는 95. 1월 당시 싱가포르에 정치적 경화현상이 증대됨을 경고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명 국회의원이 당내 및 의회 내에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성향도 증가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직능대표격인 지명국회의원(NMP)의 정원을 1997년 총선 이후부터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다.

□ 외교

1) 외교정책 목표

국제관계 속에서 소국(a small state)인 싱가포르의 정치적 생존 확보지역 경제의 중심으로서 싱가포르의 경제적 생존과 지속적 번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외교정책의 주요 원칙

소국으로서 주변지역 및 세계에 대한 환상 배척(no illusions about the state of our region or the world),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고 억지력을 갖춘 국방체제(credible and deterrent military defence) 유지, ASEAN의 활동 지지, 동남아시아 및 아·태지역내 안보 및 평화로운 환경 조성, 자유롭고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 구축,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 및 호혜적 교역관계 유지, UN 등 국제기구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3) 외교정책의 기본 틀

싱가포르는 협소한 영토와 부존자원의 부재, 인니, 말련 등 주변국가와 우호관계 유지 필요,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 식량·식수 및 기타 자원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등이 외교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또한 냉전질서의 붕괴이후 남사군도문제, 중국·타이완간 긴장관계, 북한핵문제등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환경 여건하에서 싱가포르의 외교정책은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주변지역의 동향과 국제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외여건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특히 인접 아세안제국의 번영과 안정이 자국의 안전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아세안 내에서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4) 외교 및 안보정책 기조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본 틀에 따라 주변국가 특히 인니 및 말레이시아와의 선린우호관계 확대 발전에 주력하며 양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ASEAN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제적 지위 및 발언권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199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제창하고, 1995년 회의에서는 AFIA(아세안 투자자유지대)설립을 제안·대외정책 결정시 ASEAN Solidarity를 중시하고 있으며, 95.12월 제 5차 ASEAN 정상회의에서의 동남아 비핵화지대 조약체결 참여 등 ASEAN 전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공동 보조, 자주국방 정책과 병행하여, 다국적 안전보장 장치를 유지 하고 있다.

5)외교 정책 성과

다자기구에서도 적극적 역할 수행으로 대외 주도권을 확보하고, APEC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 외에 고유가로 인한 인프라 건설 참여,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경험 전수 등 "targeted approach"를 통해 단계적으로 중동진출을 추진중이다. 싱가포르는 2007.1월 필리핀 Cebu에서 개최되는 ASEAN+3/EAS 정상회의를 앞두고 EAS와 ASEAN+3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반영 및 전략적 비전을 추구하는 메카니즘으로서 EAS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점진적으로 선회중이다.

싱가포르는 2007.8월부터 필리핀으로부터 ASEAN 의장국을 인계받아 ASEAN+3 창설 10주년, ASEAN 대화상대국(EU, 미국, 캐나다)과의 관계 수립 30주년, ASEAN 창설 40주년 등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며 역내 금융·물류중심국가(Hub)로서 ReCAAP을 통한 해적퇴치활동 등 해상안보, 종합공급망 안보(Supply Chain Security), 항구복구(Port Recovery), 컨테이너 안보 이니셔티브(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등 역내 안보협력 및 국제공조 노력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제

싱가포르는 주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가 중심을 이룬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농업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취업 노동인구의 비율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혼합농업이 지배적으로 채소재배와 가금류 사육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닭고기 생산량은 국내수요의 극히 일부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른 식품들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화강암 채석을 제외하고는 광업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료 광물은 모두 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 전역의 해저 석유탐사를 위한 굴착장비를 제조하며, 세계의 주요 정유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한 많은 양의 주식 정광을 제련한다. 제조업은 GDP 가운데 1/4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력도 전체의 1/4 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운송장비와 전자제품 등이 주요 생산품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주철 공업단지에는 1,600개 이상의 공장이 있으며, 섬유, 합판, 베니어판, 벽돌, 시멘트와 여러 가지 화학제품, 플라스틱, 강철봉과 강관, 선박등을 제조한다. 전력은 전적으로 수입연료를 이용해 생산한

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싱가포르의 100개 이상의 상업은행이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은행이다. 1968년에 아메리카은행의 도움으로 개설된 아시아 달러 시장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주로 아시아계 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중개한다. 주요 교역대상국은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이며 원유, 자본재, 공업원료가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한편 석유제품, 전기기구와 섬유 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 등을 수출한다. 제조업 부문의 급성장으로 중계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줄었지만, 싱가포르의 여간출입 선박의 총 톤수로 따져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가운데 하나이다

□ 오늘날의 싱가포르

1965년 8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싱가포르는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전형적인 제3세계 국가에 불과했다. 당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약 500달러 정도이나, 1990년 리완유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시점엔 1인당 GDP가 12,200달러 정도가 되었고, 1999년에는 그 두배가량인 약 22,000달러가 되었다. 현재 싱가포르의 1인당 실질 GDP는 세계 4위에 달할 정도로 약 40년 전과는 완전히 변했다

국가별 국제경쟁력 순위를 매기면 매년 최상위권에 드는 나라이며, 미국에 경제, 안보분야 등 많은 것을 의존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법을 어기고 행패를 부린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에게 가차없이 태형을 집행하는 등 결코 부끄럽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 전초기지로써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약 6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 대한 관계

한·싱가포르 양국은 1975.8월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2005.9월 '한국주간(Korea Festival)' 행사, 2006.3.2 한·싱 FTA 발효 등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 양국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3. 공식방문 기관

	특 성	우리구와 연계
홍콩 사회복지부 노인복지부 Sheng Kung Hui Li Ka Shing Care and Attention Home for the Elderly	노인 등 사회복지 실태 비교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 운영실태 비교분석 및 선진제도 벤치마킹
싱가폴 의회(국회)	노인복지 및 양로시설 관리 및 운영 실태 비교	고령화시대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벤치마킹(노인복지관 시설, 노인시설 운영 실태 등 등)
싱가폴 국립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상임위 대신 특별위원회제도 활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 비교시찰
싱가폴 City Gallery (도시개발전시관)	아시아 최고의 어린이 도서관운영	어린이 도서관 운영실태등(재송동 어린이 도서관 비교)
	싱가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 모습과 좁은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	관내 각종 개발 사업 추진 대비 비교 시찰

1 홍콩 노인복지부 및 사회복지부 방문



방문기관	Po Leung Kuk Comfort Court for the Senior (홍콩정부 산하 사회복지부, 노인복지부)
방문일시	2011년 7월 12일 오전 09시 30분
프로그램	홍콩 노인복지 제도 비교시찰

□ 홍콩의 사회복지 정책

홍콩은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노령의 경우 퇴직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기금제도가 있으며, 보건의 경우,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는 물론 사회보험 제도도 도입되지 않고 각 사업장이 다양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행태를 띄고 있으나 보통 홍콩달러로 100불 정도면 건강진단이나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실업의 경우 사회보험 제도는 없고 실업자를 공공부조하에서 다루고 있다.

즉 홍콩의 사회복지에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포괄 사회보장 부조(CSSA)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고, 집세, 이동비, 특별식단 등 특별보조금과 장기보조금 및 편부모 보조금 등이 있다

○ 기타 포괄사회보장급여(PCSSA)

노령급여와 장애 급여가 있는데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65세부터 자산조사를 하여 노령급여를 지급하나 70세 이상은 자산조사 기준이 더 낮아진다. 장애급여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 밖에 경찰 등이 공무수행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가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나 유족의 재정지원을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부조 제도가 있다. 긴급구호 제도로 자연재해 등의 피해자에게 현금, 식품, 생필품을 제공한다

○ 사회복지 서비스

가족 및 아동복지 서비스는 약 65개의 가족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카운슬링, 아동 위탁보호, 가정보조 서비스, 가족 부조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노숙자를 위한 일시보호소, 주간 구호소, 도심숙소등을 운영하고 있다.

○ 노인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지원 서비스로 주간보호센터, 근린 노인센터, 다목적 서비스 센터, 노인지역사회센터, 노인 지원팀, 부양자 지원센터, 가사보조, 식사 배달 등이 있고, 시설보호 서비스로 노인숙소, 노인그룹홈, 요양원 등이 있다. 2000년부터 노인서비스의 표준보호욕구사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이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나 시설보호를 신청할 경우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는 제도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 공원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간병자에게 월 30만원 가량의 현금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 홍콩 노인복지 기본 현황

○ 노인인구의 동향

홍콩은 구룡반도와 홍콩섬 및 235개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6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서서히 그리고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98년 현재 968,600명으로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14.5%에서 2001년 14.9%, 2016년에는 19.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 현재 747,052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1.1%이었으며, 2003년 현재 11.9%였다. 앞으로 2016년에는 1,076,700명으로 전체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13.4%로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며, 2029년에는 약 20.0%, 2031년에는 24.3%가 되어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점차 수명이 연장되면서 75세 이상 노인도 2001년 현재 292,600명으로 전체 인구비율의 4.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3년에는 약 33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1%를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42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85세 이상 노인의 인구도 1981년 현재 0.3%에서 2001년 현재 0.9%가 되었으나, 2031년에는 전체인구의 2.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환경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개발로 평균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자의 평균수

명은 2004년 현재 77.4세로 2019년에는 78.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여자의 경우에도 각각 82.7세에서 83.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65세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1996년도에 16.2세이고 여자가 19.6세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남자가 17.1세, 여자가 20.1세로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각각 17.7세, 20.9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1996년 현재 142달러로 1991년의 124달러보다 5년만에 18달러가 증가된 상태이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54달러, 2003년에는 161달러, 2011년에는 158달러로 추계되며, 2021년에는 227로, 2029년에는 309달러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지원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핵가족의 증가와 일하는 부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서비스를 체계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홍콩 노인서비스 운영 실태

○ 홍콩의 노인서비스제도

1) 노인을 위한 국가정책

홍콩은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156년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중국의 1국가 2체제와 고도자치 준수 및 인권과 자유의 보장 다짐 속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따라서 홍콩의 노인정책은 홍콩반환 후 5년 동안(1997-2001년) 복지정책틀 안에서 노인복지정책을 다듬어 2002년부터 'Care for Elders'하에 변화된 새로운틀로 개혁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의 케어가 가족의 책임이며, 정부는 노인에게 안전을 포함하여 소속과 풍요의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언하였다. 노인을 위한 케어영역과 지원서비스에서의 핵심적인 원칙은 “지역 고령화의 접근”, “지역사회 내의 케어”, “케어의계속화”의 3가지를 들고 있다.

그래도 노인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한 것은 노인에게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요구의 변화에 따라 충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요구를 최소화하는데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전체 범위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노인의 사회, 정신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인을 위한 주거, 재정적 안정, 보건의료서비스, 거주케어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협회는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노인서비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의 노인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거주케어서비스를 들 수 있다.

홍콩 노인 서비스 제도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거주케어서비스
이웃노인센터(NEC)	호스텔
노인사회센터(S/E)	노인의 집
구역노인지역센터(DECC)	집중케어홈
노인지원팀	널싱홈
데이케어센터(DE/DCU)	케어지속형
통합홈케어서비스(IHCS)	치매유니트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EHCCS)	거주휴식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HHS)	응급장치서비스

2)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홍콩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가운데에서 하나인 지역사회지원서비스(Community Support Services)는 2003년 4월부터 노인에게 확대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조직되었다. 이는 2001년 사회복지국에서 “노인을 위한 케어(Care for Elders)”라는 정책으로 대두된 것이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살아 남도록 노인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수발자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다양성이 증가되었고,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좀더 통합된 접근방안으로 보면 된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단위 수는 2002년 전에는 12개 종류의 시설

로 구성되었으나, 2004년도 현재에는 9개 종류의 시설로 통합 및 합축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재조정된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가장 초점이 된 사항은 노인을 위한 모든 다양한 서비스센터가 종합화된 구역노인 지역 센터(DECCs)로 홍콩의 18개 행정구역별로 설치되면서 상향 조정된 것이며, 110개소의 사회센터가 이웃 노인센터(NECs)로 기능별로 분리, 조정되었고, 모든 가정간호 팀, 식사 배달 팀과 대부분의 가정봉사 팀들이 통합 홈 케어 서비스팀(IHCSTs)으로 재조정 된 것이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다시 센터-중심서비스와 가정-중심서비스로 구분 된다 그래서 센터-중심서비스는 구역 노인지역 센터, 이웃노인센터, 데이케어 센터, 노인지원팀 및 노인휴일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가정-중심 서비스는 통합 홈 케어 서비스, 강화된 가정과 지역 케어서 센터 서비스(EHCCS) 및 가정봉사서비스(HHS)가 해당되고 있었다.

그런데 통합 홈 케어서비스(IHCS)는 다시 2개 양상으로 아픈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EHCCS와 유사함)와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HHS와 유사함)로 나뉘어 진다.

그밖에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가운데에서도 가정-중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중심서비스는 가정봉사서비스(HHS)로 1969년 비정부조직에서부터 시작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홍콩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전	
서비스종류별	단위수
1. 노인종합서비스센터	35개(센터당 회원수 1,500명)
2. 노인지원팀	36팀(1,379)
3. 사회센터	214(547)
4. 데이케어센터	35.5(40)
5. 데이휴식서비스	12(3지역당 데이케어센터 관할)
6. 치매주간보호센터	4(20개 지역 관할)
7. 홈헬프서비스	139(평균 사례수:100)
8. 홈케어	25(평균 사례수 137)
9. 가정과 지역사회서비스	18(평균 사례수 102)
10. 수발자지원센터	2
11. 노인휴양센터	1
12. 문밖 및 레크레이션버스서비스	4대(48개석)

2004년 이후	
서비스종류별	단위수
1. 이웃노인센터(NEC)	110개
2. 노인사회센터(S/E)	60개
3. 구역노인지역센터(DECC)	40개
4.. 노인지원팀	40개
5. 데이케어센터(DE/DCU)	49개
6. 통합홈케어서비스(IHCS)	60개
7.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EHCCS)	18개
8. 가정봉사서비스(HHS)	1개
9. 노인휴양센터	
10. 노인카드	
11. 수발자지원서비스	
12. 노인프로젝트	

▶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점차 장애인, 환자, 문제를 가진 가족에게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홍콩의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가정봉사서비스의 범위는

- 가) 일반적인 개인위생서비스(목욕, 식사 등)
- 나) 식사서비스(준비와 전달)
- 다) 집안관리(청소, 금전관리)
- 라) 물건구입 및 일상용품전달
- 마) 세탁서비스(중양세탁소운영 및 가정세탁)
- 바) 동행서비스(여행, 병원, 면접시)
- 사) 장애인모자가정의 어린이 돌보기 등이다.

한편 가정케어서비스(Home Care Service)는 가정봉사서비스가 1998년도에 "Care for the Elderly" 정책으로 재조정되면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재정 자원의 추가로 9개의 홈 케어 팀(HCT)과 9개의 식사 팀(MT)이 1999년도에 발족되었고, 2000년부터는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아픈 노인을 중심으로 확대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3년 3월 모두 없어지고, 2003년 4월에 통합 홈 케어 서비스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 가정-중심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에서 살도록 노인의 능력을 배양한다.

-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도록 질병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 가정에서 늙을 수 있도록 아픈 노인의 소망을 수행한다. 즉 시설 입소는 가정에서 지낼 수 없는 노인의 마지막 선택이 되도록 한다.

나) 지역사회 내 서비스전달체계를 증진시킨다.

확대된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각기 다른 자원과 조직을 활용하고, 아픈 노인에게 총체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내 케어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의료, 간호와 재활전문가의 협력을 도모한다.

- 수발자의 지원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DECC, NEC 및 보건국과 협력한다.

다) 다른 부서 및 조직과 협력한다.

- 주택국 : 아픈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위하여 시설을 바꾸고, 공공주택과 시설을 정비한다.

- 종교단체, 학교 : 노인의 관심분야에 관한 활동과 자원봉사자의 방문

- 여가 및 문화 서비스국 및 자원봉사위원회 : 여가활동의 정비 등
라) 센터-중심의 지역케어서비스와 휴식서비스 등 서비스의 유연한 사용으로 노인과 수발자의 각기 다른 요구를 충족시킨다.

마)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가정-중심서비스와 센터-중심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한다.

바) 학습문화를 길러 줌으로써 각기 다른 가정-중심서비스팀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사) 팀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좌와 세미나를 지도한다.

아) 활동과 건강한 노후의 개념을 증진시킨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 종류별 서비스대상자의 내용 및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

EHCCS(Enhanced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s)의 목적은 수발자의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면서 친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늙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아픈 노인의 케어요구와 간호서비스를 통합된 형태로 디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 “가정에서 늙으면서”, “케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실체화 한 것이다.

2001년도에 18개 EHCCS팀이 발족되어 2004년 3월까지 3년 동안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활동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2005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 정부는 2005년 4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준비를 위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즉, 서비스계획서를 정부에 접수하여 입찰이 되면 계약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한 후, 평가를 받아 재계약(정부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겠다.

EHCCS의 입원대상은,

- (1) 65세 이상의 허약하거나 병든 노인이거나 60-64세 노인의 경우에는 지원과 케어서비스의 요구가 있다고 증명된 경우,
- (2)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며, 시설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
- (3) 표준화케어요구사정기전을 통하여 MDS-HC(Minimum data Set-Home care)에 의해 장애수준이 보통이거나 심각한 경우,
- (4) 가정과 지역사회케어서비스로 충족이 가능한 노인이 된다.

케어와 서비스의 범위는 직접 케어서비스와 지원서비스로 구분되어 각각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EHCCS의 서비스범위	
구분	내용
직접 케어서비스	특수간호 개인위생 기본간호 재활운동의 유지 및 회복
지원서비스	식사 및 가정관리 상담 및 수발자지원서비스 이동 및 동행 데이케어서비스 휴식서비스 24시간 응급지원

비용부담은 개인노인의 재정적 상태에 따라 데이케어센터와 가정봉사서비스의 비용수준에 준해서 책정되며, 해마다 새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청절차는 노인이나 가족구성원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족서비스센터, 의료사회서비스단위, 노인다서비스센터, 사회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주로 5곳의 신청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나) 통합 홈케어 서비스팀

IHCS(Integrated Home Care Services)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정봉사, 홈케어 및 식사서비스가 종합된 서비스로 2003년 4월부터 아픈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개인위생, 간호를 제공하여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팀에 자원을 추가한 것이다. 전체 139개 중에서 1개 곳(통충지역)만 HHT(Home Help Team)로 남고 모두 승격되었다.

IHCS팀은 노인, 장애인 사회적 요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며
- (2) 기능적 독립적 적절한 수준을 성취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3)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 (4) 병원과 시설의 부적절한 입원과 부적응을 예방한다.

서비스대상자는 크게 노인, 장애인, 사회적 요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 3개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노인은 65세 이상자로 일반노인과 병든 노인 모두가 된다. 60-64세 노인의 경우에는 요구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픈 노인의 경우에는 EHCCS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케어 요구 사정기전을 통하여 MDS-HC에 의해 장애가 있어야 하며, 일반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봉사서비스와 유사하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이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공격적이거나 폭력적 행동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요구를 가진 개인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나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 의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에는 유기되었거나 급성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입원, 투옥 및 사망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의 범위는 아픈 노인과 일반노인으로 구분한다.

IHCS의 서비스범위	
구분	내용
아픈 노인	① 케어관리 ② 특수간호 ③ 기본간호 ④ 개인위생 ⑤ 재활운동의 유지 및 회복 ⑥ 센터-중심의 데이케어서비스 ⑦ 지원서비스 ⑧ 수발자 지원서비스 ⑨ 가정휴식, 주간휴식, 시설휴식서비스 ⑩ 시간외 응급지원 ⑪ 환경위험 사정과 가정개선 ⑫ 가정관리서비스(청소, 침상정리, 물품구입, 세탁 및 음식준비) ⑬ 식사관리 ⑭ 이동 및 동행서비스
일반노인	① 개인위생/ 단순한 간호 ② 일반적 가정관리 및 가사업무 ③ 상담 및 수발자 지원서비스 ④ 동행 ⑤ 보육 ⑥ 건강/안전 ⑦ 물품구입 및 필수품전달 ⑧ 가정휴식서비스 ⑨ 식사와 세탁서비스 ⑩ 기타 업무(노인수발자를 위한 지원제공)

아픈 노인의 경우에는 케어관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 홈 케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노인과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지불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시 식사와 세탁 등의 기본비용과 서비스 비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면, 식사의 경우에는 식사당 10.10홍콩달러를 내는데, 9.2홍콩달러는 식사비이고, 나머지 0.9홍콩달러는 운반비로 되어 있다. 세탁비의 경우에는 3단계로 구분하여, 가벼운 것은 0.30홍콩달러, 보통은 0.50홍콩달러, 무거운 것은 1.40홍콩달러가 된다.

대상자의 수준별 서비스비용과 기본비용은 대상자의 수입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엮볼 수 있으며, 기본비용과 서비스비용이 추가되면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다.

IHCS의 비용범위

수입수준	단위 : 홍콩달러		
	수준 1 CSSA*기준이하	수준 2 1-1.5기준	수준 3 기준 1.5이상
서비스비용			
식사전달	2.5	5.3	8.5
세탁전달		전체 0.4	
시간당 개인서비스	5.4	11.7	19.0
기본소비+서비스			
식사전달	12.6	15.4	18.6
경		전체 0.7	
보통		전체 0.9	
중		전체 1.8	
시간당 개인서비스	5.4	11.7	19.0

다) 구역노인지역센터

DECC는 행정구역 수준에서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살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존엄성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노인들의 긍정적이고 공헌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을 확립하여 공공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직원을 연합하여 다양한 조직망으로 이룩된 DECC는 행정구역내 노인서비스단위에서 지원과 협력으로 보건의료, 정신-사회적,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넓은 범위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역 노인지역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직접서비스의 9종과 간접서비스의 4종으로 나뉜다.

서비스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공식적 수발자와 비공식적 수발자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회원제로 되어 있어 1년당 21불만 내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이용비가 있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노인이나 수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역노인지역센터는 사회복지국 (www.info.gov.hk/swd)에 접속하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모든 것을 정부가 관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DECC의 서비스범위	
구 분	내 용
직접서비스	① 교육적 발전과 개인적 개발 ② 자원봉사자 파견 ③ 지역사회 자원의 정보제공과 의뢰 ④ 상담서비스 ⑤ 노인을 위한 지원팀서비스 ⑥ 수발자 지원 ⑦ 사회적 활동 및 여가 ⑧ 식사 및 세탁서비스 ⑨ 센터방문
간접서비스	①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른 제삼자와 함께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개발, 확립한다. ②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중점적인 노력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와 협력한다. ③ 지역사회내 다른 조직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와 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한다. ④ 각기 다른 노인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라) 이웃노인센터

이웃노인센터(Neighbourhood Elderly Center; NEC)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존경하며 위엄 있는 인생을 이끌고, 돕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노인의 긍정적이고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증진하도록 이웃 간에 돕는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NEC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조금 아픈 노인에게도 정신-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케어요구에 알맞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E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① 건강교육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증진
- ② 교육적 개인적 개발
- ③ 자원봉사자활동 및 서비스운영에서의 구성원의 참여
- ④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자원의 의뢰
- ⑤ 사회적 여가적 활동
- ⑥ 방문 및 사회망 조성
- ⑦ 상담서비스

- ⑧ 수발자 지원
- ⑨ 식사서비스
- ⑩ 센터방문

서비스대상자는 60세 이상노인과 공식적 비공식적 수발자가 된다. 비용부담은 회원제로 운영하되 회원은 1년에 21불을 낸다. NEC가 있는 곳은 사회복지국에 연락하면 알 수 있다(www.info.gov.hk/swd).

마) 노인사회센터

노인사회센터는 주로 지역사회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여가적 활동으로 조직되어 노인에게 다른 사람과 사회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시간을 구축하고 사회망을 만들어주며, 지역사회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안녕과 상호지원을 증진한다.

서비스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의 여가, 사회적 교육적/개발적 요구를 충족하는 활동이나 집단(가정내, 가정외)을 조직한다.
- ② 노인에게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나 필요한 조직을 의뢰한다.
- ③ 지역사회내 활동에 참여하고 상호 돕는 활동을 조직하여 구성원을 북돋는다.
- ④ 독서, 텔레비전시청, 장기 등과 같은 비구조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여가시설
- ⑤ 사회적 접촉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곳

서비스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이웃에 살고 있으면 된다. 회원제로 1년에 21불이다. 사회센터의 정보도 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관장한다.

바) 노인지원팀

홍콩은 지금 핵가족의 급속한 증가와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등 빠른 도시화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1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약간의 지원을 받을 뿐이다.

노인들이 친숙한 환경에 남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노인지원팀(Support Teams for the Elderly)은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한 종류로 구역노인지역센터에 부속되어 있는데, 목적은 ① 취약한 노인에게 사회망과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자원봉사자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노인지원팀의 서비스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방문을 통하여 취약한 노인을 식별한다.
- ② 취약한 노인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포함시킨다.
- ③ 취약한 노인을 돕도록 모든 연령의 자원봉사자집단과 자원봉사자를 뽑고, 사정하고 훈련한다.
- ④ 취약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과 전화로 규칙적 접촉
 - 정서적 지원
 - 지역사회자원의 소개
 - 동행, 가사 등과 같은 개인적 돌봄
 - 공식적 서비스의 의뢰
- ⑤ 다른 요구집단이나 소속직원을 돕는 노인자원봉사자를 움직이게 한다.

서비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 ① 1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단순한 요구를 가지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는 60세 이상의 취약한 노인
 - 혼자 살거나 가족지원의 부족
 - 사회조직망의 부족
 - 불건강
 - 재정적 어려움
 - 문제있는 환경의 거주
 -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지식부족
 - 이외 혜택받지 못한 상태
- ② 개인이나 자원자집단을 포함한 모든 연령의 자원봉사자
- ③ 취약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주려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대상자정보시스템은 노인에 관한 대상자 정보를 노인지원팀에 의해 유지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공될 수 있다. 통계적 자료는 정부의 사회복지국이나 지역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규칙적으로 정비되어 제공된다(Elderly Branch, SWD, 2003).

사) 데이케어센터

노인에게 제공되는 데이케어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적 케어(이동, 개인위생, 음식먹이기/ 식사시 돌보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몸단장, 요실금 케어 등 대소변 돌보기)
- ② 간호(의료관리, 정규적 진찰, 드레싱, 소변기 바꾸기, 건강상담 및 응급관리)
- ③ 재활서비스(물리적 운동, 물리치료, 작업요법)
- ④ ADL 훈련
- ⑤ 사회, 여가활동(여가활동, 사회프로그램, 취미집단)
- ⑥ 건강교육(당뇨관리, 건강이야기)
- ⑦ 식사(아침, 점심, 저녁)
- ⑧ 센터 이동서비스
- ⑨ 응급시 동행서비스
- ⑩ 단순한 상담 및 의뢰서비스
- ⑪ 수발자를 위한 지원서비스(가정방문, 가족활동, 지원집단, 수발자훈련)

대상자는 개인적 요구를 가지거나 간호에서 가족구성원이나 다른 수발자를 찾을 수 없는 노인이 되는데, 데이케어센터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60세 이상
- ②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홍콩거주자
- ③ 노인서비스를 위한 표준케어요구사정기전에서 서비스대상자가 MDS-HC에 의해 장애수준이 보통이거나 심한 수준으로 분리된 경우
- ④ 서비스대상자의 가족구성원이 대상자에게 전시간 동안 케어를 제공하지 못 할 때

- ⑤ 서비스대상자와 그의 가족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거나,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려고 할 때
비용부담은 적어도 901불(50%의 장애와 독거노인)에서 988불(100%장애와 장애수당을 받는 노인)에 해당된다. 이동비용은 1개월에 30불이 된다.

2001년 6월 1일부터 표준화케어요구사정기전에 의해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의 새로운 적용이 서비스제공자 대표에게 위임되어 의뢰되고 있다. 지원서는 이미 2001년 1월 에 만들어져 시행 가능케 되었다.

아) 가정봉사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Home Help Service)의 목적은 가정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장애되어 그들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노인과 가족을 돕는 것이다.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 개인서비스(목욕 및 음식먹이기 등)
- ② 가정관리(청소, 예산관리)
- ③ 물품구입 및 세탁서비스(중양 및 가정별)
- ④ 장애 및 성인을 위한 모아서비스
- ⑤ 동행서비스(병원/의원, 면접)
- ⑥ 식사서비스(준비, 운반)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돌볼 사람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 및 사회적 요구를 가진 자로 하고 있다. 그래도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노인과 가족에 있다. 노인은 가족서비스센터, 통합된 가족서비스센터, 의료사회서비스단위 및 DECC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가정봉사 팀에게 신청하면 된다. 비용부담은 개인이나 가족의 수입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3) 시설입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입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홍콩에서는 거주노인을 위한 서비스(Residential Care Services)로 명명하고,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SWD, 2001).

- ① 건강이나 사회적 이유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집에서 살 수 없어 시설에 있는 노인에게 거주케어를 제공하고,

② 가능한 한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노인의 다양한 개인적 요구와 일상생활동작능력을 도우며,

③ 거주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여가요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거주노인서비스를 위한 거주케어홈은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서로 다른 요구를 단계별로 충족시키기 위한 전달체계라 하겠다.

<거주케어홈의 형태>

저수준 케어 > 고수준 케어

자기관리호스텔-->노인의집-->집중케어홈-->넬싱홈

거주케어홈의 종류별 양상과 단위수는 아래와 같다.

거주케어서비스의 연도별 추이

서비스종류별	단위수	
	2002년전	2004년 현재
호스텔	276	97
노인의 집	8,802	8,451
집중케어홈	16,425 (보조금운영:10,222	19,518 (11,534
	자체예산운영 : 1,696	1,945
	BPS, EPBS : 4,507	6,039)
넬싱홈	1,400	1,884
케어지속형	450	-
치매유니트	144	-
거주휴식서비스	11	11
응급장치서비스	-	145

2002년도 전에는 호스텔이 276개소, 노인의 집이 8,802개소, 집중케어홈이 16,425개소, 넬싱홈이 1,400개소, 케어지속형이 450개소, 치매유니트가 144개소, 거주휴식서비스가 11개소이었다. 그러나, 2004년 현재는 많이 정비되어 호스텔은 1/3로 감소되었고, 노인의 집도 다소 감소되었으며, 집중케어홈이 증가되었다. 케어지속형과 치매유니트가 없어진 반면 응급장치서비스가 45개소로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노인사무소의 거주케어서비스전달체계에 등록된 노인은 29,202명으로 서로 다양한 양상의 거주케어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많은 노인이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가) 호스텔

자기관리가 가능한 노인에게 직원의 지원과 조직된 프로그램으로 평범한 삶의 순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양상은

- ① 주어진 방에서 순응한다,
- ② 사정, 상담, 의뢰, 조직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영역,
- ③ 일상생활에서 거주하는 시설의 정보제공,
- ④ 거주자의 사회적 여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조직된 활동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구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북돋우며, 지역사회와 가족간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호스텔에 입소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65세 이상의 노인
- ② 독자적으로 살 수 없으며 사회적 요구 및 가정적 요구를 가진 경우
- ③ 개인위생의 능력과 일상생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④ 일상적인 삶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
- ⑤ 전체가구수입이 재정적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위한 정상적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비용부담은 1개월간 502불의 비용을 지불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사회 복지국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나) 노인의 집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과 식사 등을 돕는 거주케어를 제공한다. 이들은 개인서비스와 간호로도 독립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서비스의 양상은

- ① 주어진 방에서 순응한다.
- ② 하루에 적어도 3식을 제공한다.
- ③ 사정, 상담, 의뢰, 조직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영역

- ④ 청소와 힘든 세탁 등과 같은 일상생활활동의 도움
- ⑤ 개인활동의 지원(편지쓰기 등)
- ⑥ 거주자의 사회적 여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조직된 활동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구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북돋우며, 지역사회와 가족간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다.

입소 가능한 대상자는

- ① 65세 이상의 노인
- ② 독자적으로 살 수 없으며 가정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를 가진 경우
- ③ 개인위생의 능력과 개인세탁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④ 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음식 만들기, 청소 시장보기 및 무거운 세탁과 같은 일상 생활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 ⑤ 일상적인 삶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
- ⑥ 전체가구수입이 재정적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위한 정상적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비용부담은 장애수당자는 1,506불이며, 비장애수당자는 1,429불이다.

다) 집중케어홈

일상생활을 위해 정신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일상생활활동의 결핍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경한 정신적 장애로 고생하는 노인을 위한 식사, 개인케어 및 제한된 간호 및 거주케어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어진 방에서의 순응
- ② 하루 3식과 간식의 제공
- ③ 사정, 상담, 의뢰, 조직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영역
- ④ 행정과 투약을 포함한 간호
- ⑤ 1일 24시간의 직원근무
- ⑥ 의사에 의한 규칙적 방문
- ⑦ 일상생활활동과 같은 개인활동서비스
- ⑧ 집단이나 개인별 치료적 운동과 치료, 거주자의 기능유지와 증진
- ⑨ 거주자의 사회적 여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조직된 활동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구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북돋우며, 지역사회와 가족간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다.

집중케어홈의 입소대상자는

- ① 65세 이상의 노인
- ②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동작능력의 기능적 장애인 경우
- ③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걷을 수 있는 경우
- ④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 ⑤ 일상적인 삶을 위해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

한달 비용은 장애수당자는 1,813불이며, 비장애수당자는 1,605불이다.

□ 중국 반환이후 홍콩의 사회복지 변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사회복지 정책은 큰 구조적 변화가 없다고 한다. 퇴직공제기금제도(MPF)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는 홍콩의 중국 반환하고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제도이다. 단 홍콩의 중국반환으로 인해 실업률의 증가, 가족 해체의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 홍콩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홍콩 중국행정 특별구역으로서 중국 사회복지체제로의 수렴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즉 홍콩의 사회복지가 보건, 주거, 노령 등에 대해 보편적이 최저수준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사회주의적 복지의 틀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으며, 오히려 중국반환이후 홍콩 사회복지의 잔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 홍콩 노인복지 제도의 미래

홍콩의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같은 노인일지라도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면 현재의 다른 노인보다 또 다른 요구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노인들은 그들 요구를 받아주기를 기대할 것이며 서비스내용, 모델과 질에 대한 다른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만일 장

래 정책이 그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분을 더 많이 한다면 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나) 장기요양보호체계를 확립한다

아픈 노인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의 각 부처-건강관리, 보건복지서비스는 보다 긴밀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짜임새 있는 장기요양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홍콩은 가정에서 노인을 돕도록 수발자를 돕는 것과 같은 지역사회지원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한다. 거주서비스는 아픈 노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간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만 제공될 것이다.

다) 장기요양보호의 재정적 지원을 연구한다

노인인구는 지금 노인들이 베이비붐시대였던 것처럼 10년 동안에 급증할 것이다. 낮은 출산력으로 인해 현재 장기요양케어 재정적 정비의 안정성은 비판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라) 서비스다양성의 증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더욱 더 분화될 것이다. 일부는 정책의 변화에 따를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바뀔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으로부터 복지부문에 해당되는 진료소로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례는 살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퇴직주거와 편리한 주거를 통합한 것이거나 케어를 통합한 주거의 종류를 말한다.

마) 서비스통합

앞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은 케어의 지속성과 서비스통합성이라는 개념에 적용될 것이다.

서비스들은 가정에서 아니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한번에, 전문적 서비스가 노인들에게 제공되도록 재조정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거주케어홈에서의 케어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강화된 가정과 지역사회케어서비스(EHCCS)와 노인을 위한 통합된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모든 종류로 구성된다.

마) 다양한 기술의 훈련

노인서비스에서의 통합은 주요 경향으로 복지부문의 인력은 노인
의 사회, 심리적 케어와 간호 등 노인에게 질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 Po Leung Kuk Comfort Court for the Senior

- 1) 19세기 후반 여성과 아이들의 유괴와 인신매매는 홍콩에서 심각한
범죄였다. 1878년 11월 8일 지역 내의 중국인 집단은 총독 John
Pope Hennessy, K.C.M.G.에게 유괴 희생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보량
국(保良局.Po Leung Kuk)을 세워줄 것을 간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
다. 그리하여 11월 8일이 보량국의 설립일로 간주된다.
- 2) 보량국은 아이들과 약자들의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는
여성과 아동의 유괴 억제 및 이러한 희생자들을 위한 교육과 보호소
공급에 주로 관여했다. 세기에 걸쳐 보량국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에 발맞춰 다양화된 조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3)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Po Leung Kuk의 노인 복
지 분야에서는 1987년 이래로 4종의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노인의 집(Aged Homes)
 - 노인 주간 센터
 - 노인 사회 센터
 - 노인 대책 강구 센터

► Po Leung Kuk Comfort Court for the Senior

노인의 집(Aged Home)에 속해있는 센터 중의 하나로 이상적인 주
거 환경과 흥미롭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그룹활동, 전문적인 특별
간호와 개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 노인복지부 및 사회복지부 노인복지실태 운영현황 브리핑

□ 주요 질의 및 답변

Q 노인복지부와 사회복지부의 차이점은?

A 두 기관은 노인들의 장기 보호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부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인 대신에 사회복지부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Q 사회복지자문 위원회의 기능은 어떤것인지?

A 사회복지 자문위원 선출은 일반시민중에서 하며, 위원장은 행정수반이 임명함, 주 역할은 사회복지제도 예산중 자문위원 요청에 따라 예산 지원하게 됨

Q 복권기금 자문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A 노인보호소의 각종 수리비용에 사용함

Q 노인보호시설 설치 관련 님비 현상은 없는지?

A 홍콩도 마찬가지로 앰블런스 소리등을 싫어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에 들어서는 것을 싫어한다

Q 건강한 노인들에게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A 매달 1,000불씩 모든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한다

Q 노인요양보호 시설에 입소할 때 어떤 테스트를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나?

A 재산, 부양 가족 유무 관계등이 시설 입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재산이나 부양 가족이 없을때 입소가 가능하다

이외 노인들에게는 시설에서 보호 하지는 않지만 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이를 돌보는 사람도 지원하는데 노인인구의 약 70%가 여기에 해당된다



방문기관	Sheng Kung Hui Li Ka Shing Care and Attention Home for the Elderly
방문일시	2011년 7월 12일 오전 11시 30분
프로그램	홍콩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운영실태 파악

홍콩은 기부문화가 발달된 도시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남은 이익금을 시설투자나 사회봉사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재단이 달리 운용할 수 없는 엄격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Sheng Kung Hui Li Ka Shing Care and Attention Home for the Elderly**도 **Li Ka Shing**이 기부하여 만든 시설로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기능장애를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중에서, 그리고 최소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거동을 할 수 있으며 하며,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어 함께 지낼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마지막으로 단체생활을 하는데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1 싱가포르 국회(의회)

■ The Parliament of Singapore



방문기관	The Parliament of Singapore (싱가폴 국회)
방문일시	2011년 7월 14일 오후 14시
프로그램	의회 정책결정 절차에 대한 소개와 국회 본회의장 시찰

가. 싱가포르 국회 개요

싱가포르르는 단원제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족수는 21세 이상 유권자의 보통·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83명의 의원과 낙선한 야당 입후보자 중 최다(最多) 득표자를 무(無)선거구의원(NCMP:

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으로 하고, 국회가 지명한 2년 임기의 지명의원(NMPs: Nominated Members of Parliament) 9명 등 총 93명으로 구성된다. 의회가 중도에 해산되지 않는 한 원(院) 구성일로부터 5년을 임기로 한다.

2005년 말 국회는 싱가포르의 제 10대 국회로서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2001년 11월의 총선에서 압승한 후 2002년 3월에 개원하였다. 총 의석 94석 중 인민행동당이 82석을 석권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WP)과 인민당(SPP)이 각각 1석을 차지하였으며, 무선거구 의원은 국민단결당(NSP)의 몫이 되었고, 9명의 지명의원이 합류하여 다당제(多黨制) 의회제(議會制)의 형태를 갖추었다. 싱가포르 국회는 1990년 3월 최소 3명 이상 최대 6명 수준의 야당의원에게 국회의석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회의 특별위원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의원제도와 최다 득표한 낙선 야당 후보자에게 의석을 부여하는 무선거구 의원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선출방법

▶ 무선거구 의원제도

싱가폴의 야당은 정말 약하다. 한 정당만 장기 집권을 하다보니 국민들이 야당을 원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권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래서 싱가포르 선거에는 생소한 제도들이 있는데, 먼저 무선거구의원제가 있다. 1984년 도입된 이제도는 야당 후보중 15% 이상 득표한 최다 득표자 3명에게 의회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무선거구제 의원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리완유 총리가 내세웠던 명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당의 역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을 교육시킨다. 둘째 국회의원과 장관들의 토론기술을 연마 시킨다 셋째 부정 부패와 정실주의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공개되도록 한다

명분도 재미있고 제도의 내용도 재미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당선된 무선거구 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투표, 예산안 관련 일부 법안, 정부 불신임 투표에는 참여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2급 의원일 수밖에 없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5%이상 득표할 수 있는 야당 정치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 지명의원제도

지명의원 제도는 무선거구 의원제가 더 많은 야당의원들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고안되었다 1989년 도입된 이제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

당시 제1부총리였던 고축동은 이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체계를 더욱 강화 시키고 대안적 견해와 건설적 이견이 수용되는 보다 합의적인 정부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건설의 이견이 수용되는 보다 합의적인 행태의 정부, 그러나 지명의원들은 무선거구 의원처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현재 지명 의원은 2년 반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지명 의원으로는 9명이 선출되었다

▶ 집단 대표선거구 제도

집단 대표 선거구제는 인접한 3선거구를 묶어 3명의 후보로 구성된 집단에 투표하게 하는 제도이다 1987년 도입된 이제도는 최다 득표를 획득한 집단이 선거에 승리하여 국회의원이 된다. 집단대표 선거구제도는 야당 혹은 소수집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시 되었는데, 후보로 나서는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은 말레이인, 인도인 혹은 다른 소수 종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도는 사실상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인민 행동당의 권력을 유지하려는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 하면 야당은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해서 3명을 묶어서 출마시킬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야당으로서는 1인 선거구제도 아래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후보를 출마시킬수 있었지만 집단 대표선거구제도 아래에서는 3명을 한꺼번에 출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각 후보당 6,000SGD의 출마비를 내야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로서는 1인 선거구와 집단 선거구 제도가 병행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

▶ 국민 행동당의 장기집권 이유

지금까지 선거에서 야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 했던 것은 1963년이다

이때 야당위원의 수는 14명 이었는데 그중 13명이 사회주의 전선 소속이었다. 그런데 1966년 사회주의 전선 의원들이 의회를 보이콧하면서 이후 국민행동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졌다. 국민행동당이 40년 넘게 매우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안 야당의 부재에 있다. 싱가포르에는 인민행동당을 대신 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 이렇게 야당이 취약한 것은 야당이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부족, 인민행동당이 유능한 관료나 전문가 독점으로 인적자원 확보 곤란, 지금까지 여당에 필적할 만한 광범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국민행동당 지도자들이 권력남용, 부패, 국민의 이익과 관련해서 어떠한 실수나 경시없이 행정을 해온 것이 주된 이유이다

1) 의회의 기능

의회의 기능은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회는 예산동의권이나 국정감사권이 없다.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예산위원회가 유일한 상설위원회였으며, 10대 국회에서 6개 상임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주로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위원회인데, 국회특권심사위원회 · 청원위원회 · 의사규칙위원회 등이다. 여타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중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를 활용하고 있다.

각료로 임명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겸직(兼職)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겸직 의원들에게는 세비(歲費)가 없고 소액의 국회 등청(登廳)수당이 지급될 뿐이다. 의원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비서관을 지원하는 일도 없다. 또한 임명직 의원과 무선거구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안 · 예산안 · 내각불신임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표결권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세밀한 규정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해당되지만,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참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유권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국회 건물 소개

1999년에 완공되었다. 구 국회건물의 역사적이고 특징적인 면을 모아 설립되었으며, 3-4층 건물로 2.2헥타르를 차지한다. 지역구의 자연환경에 맞춰 설립되었으며, 국회 내부에는 국회 멤버들의 필요성 충족과 정보기술의 요구에 맞춰 건설되었다.



또한, 무감사위원회실, 도서관, 연구실, 170좌석의 대의실, 식당 등을 구비하고 있다.

3) 본회의장

싱가폴 국회의 본회의장 좌석배치는 웨스트민스터(영국 국회의사당) 스타일을 따른다. 본회의장 내에는 약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확보되어 있으며(필요에 의해 20명 정도가 더 앉을 수 있다) 전자투표 시스템, 디지털 국회시스템, 전용 컴퓨터 전산망, TV 방송을 위한 로봇을 이용하는 카메라 등을 구비하고 있다.



대중과 언론을 위해 국회 갤러리를 최근 확장했으며, 또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갤러리를 오픈했다. 이 갤러리의 시찰은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국회 회의절차 경험과, Role play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쉽게 인식시키고 있다.

4) 국회의 역할

싱가폴 국회는 웨스트민스터 (영국 국회의사당)를 본따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또한 그의 판단으로 국회의 신임을 얻고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국회 멤버를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그의 내각에서 선출된 멤버들 중 장관을 선출한다. 국무총리와 그의 내각은 국회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갖는다.

영국의 법과는 다르게,싱가폴 국회는 단원제이다. 국회의 기능은 국가의 3개 범지정기관과 나누어 수행된다. 국회는 경리와 자금 문제를 관리하며, 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나머지 2개의 범지정기관은 집행부와 사법부이다.

21세를 넘은 싱가포르 국민은 누구나 헌법적 요구에 맞는다면, 투표를 통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무소속 입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정당에 가입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싱가폴에서 투표는 21세가 넘은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다. 국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면, 국회 의장은 나머지 국회 멤버들에게 선서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싱가포르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의 추진업무와 정책 등에 관해 연설을 시작한다.

국회 개정 날짜는 국회 의장에 의해 정해지며, 국회가 해산되면 3개월 이내에 새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규칙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정책을 통솔하고 집행한다. 의장은 MP(Members of the Parliament, 하원의원)들에 의해 국회 개회 때 선출되며, MP로서 의장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의장은 국회 회의의 규칙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발언순서를 정하여 의원들이 공평하게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을 의원들의 투표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정하며, MP들은 그의 문제해결 절차와 결정 순서 및 통치 전략에 대해 의장에게 자문을 구한다.

나) 원내총무 (Leader of the House)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원내총무는 국회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또 다른 원내 총무(Party Whip)와의 토론을 통해 정부 비즈니스와 헌법프로그램의 결정 등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도 책임을 갖는다. 원내총무는 또한 국회 회기 동안의 절차적 순서를 진행함에 있어 시간을 늘리거나 절차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 원내 부총무 (Party Whip)

Whip이라는 용어는 여우사냥을 위해 사냥개를 키우던 사냥개 담당자 (whipper)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Whipper는 현재 원내 총무란 뜻과 함께 사냥개 담당자라는 뜻도 갖고 있다.) 원내 총무들은 국회회기 동안 당의 의원들을 총괄하여 규율을 지키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의 의원들과 토론을 자주 갖는다. 회기 동안의 발언자와 발언 시간 등을 재어서 스케줄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하원 의원 (MP : Members of the Parliament)

하원 의원은 선거를 통해 (각 선거구에서 최대 표수를 획득한 사람이 국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선거) 선출된다.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다수의 투표를 얻는 자가 선출되게 된다.

5) 국회 절차

국회는 헌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일이 주요 업무이며, 이 모든 과정을 걸친 법은 대통령에 의해 찬성되기 전, 국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또한, 정부의 예산과 재정 정책을 승인한다.

보통 의회 개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제기와 구두 응답
2. 정부 의안에 대한 소개
3. 의원들에 의한 의사 제안
4. 의회 일정과 발언

가) 질의

국회 의원들은 자신의 정무와 관련된 사항을 총리에게 질의할 수 있다. 단, 적어도 7일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질의사항은 국무총리가 구두로 대답하거나, 약 7일 후 서신으로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의원들이 구두 응답을 원할시, 의회 회기 중 세가지의 질문을 초과하면 안된다. 국회 회기에서 문제 제기와 구두 응답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보통 1시 10분에서 3시이다.) 질문발언은 순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며 주어진 답변에 대해 의원들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시간이 1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미해결된 문제는 후일에 서신으로 해결된다.

나) 의안이 법령이 되는 과정

법령이 되기 위하여, 의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First Reading (제1 독회)

이것은 토론 없이 진행되며, 총리가 처음의 표제를 읽고, 사무관이 나머지를 읽어 의안이 인쇄되도록 한다.

(2) Second Reading (제 2 독회)

의안의 근본 방침과 일반 적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일단 동의가 되면, 의안은 국회의 위원회로 전달된다.

(3) 위원회 순서

의안은 위원회 위원들의 세밀한 조사와 함께 동의를 거쳐 마지막까지 결정된 의안은 국회 회기를 통해 보고 순서에 다시 소개된다.

(4) 보고 순서

의안이 국회에 보고된다. 모든 의원들에 의해 개정되고 결정된 사항이라면, 마지막으로 총리와 국회의장의 자문을 얻게 된다.

(5) 제 3독회

이 순서는 제 2독회와 흡사하나 이 순서의 토론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중요 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더욱 심도적인 토론을 하게 되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투표에서 찬성동의를 얻는 의안은 서기관에 의해 한번 더 낭독되면서 비로서 법령이 된다.

1999년 현재 의회는 단원제이며, 83석이고 임기는 5년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요 정당은 인민행동당(PAP), 노동당(WP), 민주당(SDP) 등이다.

6) 오늘날 싱가포르의 정치제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토대로 하여 미국식 대통령제를 가미한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5년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의회민주주의의 원형인 '영국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스타일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험해 왔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을 중심으로 내각(행정부)이 구성되고 내각은 의회에 단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내 다수당 총재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싱가포르 의회는 도시국가의 정치현실을 고려하여 단원제로 운영되며, 5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싱가포르 의회는 법률안 심의·의결권 및 국정논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의 국회와 달리 예산안 확정권·국정조사권 등이 없으며, 상임위원회 제도 역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상임위원회로서는 예산위원회 밖에 없고, 그대신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시찰결과

형식적으로 의회 민주국가 행태지만 실질적으로는 1당 독재로 견제와 감시 기능 자체는 무의미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마음가짐은 본받을 만 하다



4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중심으로)



방문기관	싱가폴 국립도서관(어린이 도서관)
방문일시	2011년 7월 14일 오후 14시
프로그램	싱가폴 도서관 운영 비교 실태- 어린이 도서관 중심으로

싱가폴 국립 도서관에 대한 명성은 이전부터 들은 바가 있어 과연 어떤 규모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였다. 하지만 싱가폴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권이고 더군다나 작은 섬나라 아닌가? 아무리 선진국 소리를 들어도 우리나라 도서관보다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선입견이 생겼다. 처음 도서관에 도착하여 밖에서 본 도서관의 규모는 그 동안의 상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 정문에 들어설 때부터 이런 선입견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문 앞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비디오 반납대처럼 생긴 작은 철 구조물의 Book Drop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이트는 없고 분실방지지만 설치된 채 사람들이 그 사이를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 왔다.

Bookdrop은 반납시 책을 그냥 놓고 갈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내부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반납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Bookdrop으로 들어간 책은 콘베이어 벨트에 의해 자동으로 옮겨져 오퍼레이터가 여러 대의 3M M995 빠른 반납기로 반납처리한 후 분류 작업을 거쳐 다시 원래의 서가로 옮겨지도록 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빌린 책도 어디에서나 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게이트 없이 운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식 대출절차를 하지 않고 분실방지기를 통과하더라도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가이드는 “일단 대출되지 않은 책이 분실방지기를 통과하게 되면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방지를 입구와 출구로 구별하여 사람의 흐름을 방해할 필요도 없고 앞쪽에 게이트를 두어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나를 압도한 것은 우리나라 도서관에는 한 두대 밖에 설치 되어 있지 않은 3M 자동대출기 (SelfCheck)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10대 가량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었다. 자동대출기가 10대 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는 사람이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넓은 공간과 줄을 설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가 방문을 했을 때도 10대의 자동 대출기를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읽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1층의 중앙부에는 옥외 카페테리아가 마련 되어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유토론이나 특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작은 무대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가이드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모든 것이 카메라를 통하여 생중계될 뿐만 아니라 VOD에 의해 필요한 사람을 언제든지 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내부도 각 장르별 실이 따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실마다 분실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2층에 마련된 어린이 도서관과 멀티미디어 센터였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든 서가가 아이들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게 설계되어 있었으며 동화책에서 나오는 주인공들 캐릭터가 서가 모서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책을 보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에도 역시 아이들이 스스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동대출기가 3대 정도 설치 되어 있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물어보았으나 가이드는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잘 사용한다는 말을 해주었다.

2층 멀티미디어 센터에는 30평 남짓한 공간을 PC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PC앞에는 음악감상, 비디오 시청, 인터넷을 하는 사람 등 제각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쪽 면에는 회의실(Conference room)이 마련되어 있어 각종 교육이나 회의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 멀티미디어 센터의 주조종실에는 34대의 VCR과 2대의 DVD 플레이어, 그리고 수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어 그 규모만으로도 싱가포르 정부가 도서관 사업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짐작 할 수 있었다.

3층에는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 현재 국내외로 이슈화 되고 있는 현안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상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간단한 NLB 소개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앞으로는 도서관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관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며 싱가포르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서관화 함으로써 21세기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야심찬 계획을 엿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만이 싱가포르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일반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업에도 3M과 연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고 유용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장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용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너무나 앞서 있는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대단해 보였다. 좀 더 크게 본다면 싱가포르가 현재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도서관을 나섰다.

5 특별시찰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방문기관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방문일시	2011년 7월 14일 오후 14시
프로그램	싱가폴 토지 이용 및 체계적인 발달 계획 시찰

● **URA의 역할** : 도시 재개발 공사 (URA)는 싱가포르의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공사이다. URA는 도시의 체계적인 발달을 위해 계획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노력을 협조하고 인도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 전략적인 계획을 준비한다. 이러한 신중한 토지 이용 계획은 싱가포르의 강한 경제 성장 및 사회적인 단결력 증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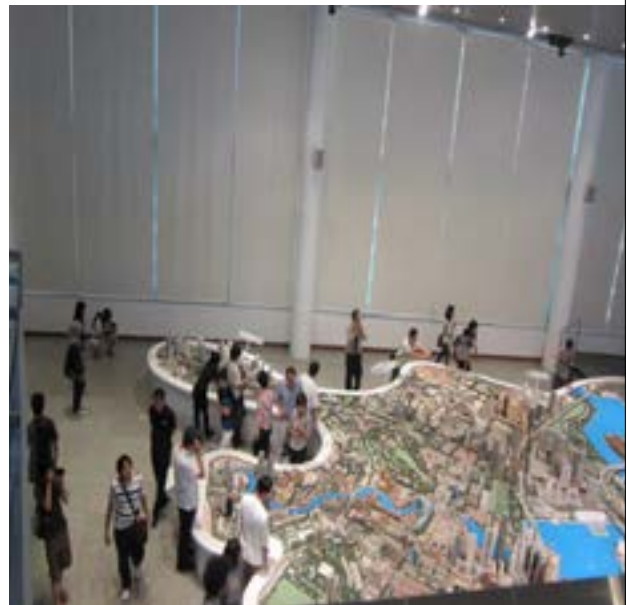
● **URA의 목표** : 대략 699 평방 킬로미터의 좁은 싱가포르는, 현명한 토지 이용 계획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URA의 활동은 국민들이 중대한 도시안에서 살고, 일하고 즐겁게 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URA는

지역 사회와 동업하여 계획하고 추진하고, 싱가포르의 체계적인 발전과 진보를 유지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도시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토지 이용의 한가지의 방법은 URA의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별적인 것 대신에 각종 기능을 함께 찾아내어서 토지 이용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완충 지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결한 발전소 연료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발달에 강제를 극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는 그런 기업을 함께 분류하고 해안에서 떨어진 장소로 이전시키기도 한다.

◎ URA만의 강점 : 도시 계획자로서의 건축가, 시스템 분석가, 임무 달성을 위해 투입된 열성적인 다른 지원 스태프 및 연구와 재산 전문가가 있다.

◎ URA의 중요 가치 :서비스, 열정, 완전성, 존경, 혁신 및 팀웍.



◎ 연수결과: 싱가포르의 URA는 우리의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합친 개념의 공공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의 경우 그 지리적 특징상 도시적인 한계 여건을 국가적으로 프로젝트화해야지만 세계화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어느 한 도시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잘 정돈된 녹

지공간과 도로망, 대규모 상업지구와 공원 및 주거지역(아파트)등은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였으며, 센토사섬과 항구 주변의 대규모 문화, 위락, 체육시설 등의 개발은 해안을 매립하여 새로이 건설했거나 진행 중인 케 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가 있다. URA 방문 후 밖으로 나오니 말로만 듣던 열대지역의 우기에 내리는 소나기인 ‘스콜’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한 시기는 싱가포르의 우기로서 이때는 하루 한차례 ‘스콜’이 내린다는데 도착 3일째에야 직접 볼 수가 있었다.

6 공식방문외 기타

□ 싱가포르 녹지 조성분야

싱가폴은 급속한 개발을통하여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한편으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지역이 파괴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도심에 인위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늘려갔다 이렇게 도시 경관에 푸른 자연을 세우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상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고, 경치가 우수한 지역, 자연,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는 등 폭 넓고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였다





싱가폴의 고층 고밀의 공공주택에 사는 많은 인구에게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는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도심속의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열섬 현상을 낮추고 소음을 줄이는 등 환경적인기능을 수행하며 도시민의 삶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도시 속에 푸른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녹색프로그램은 국가주도형 계획으로 실현되며, 이러한 싱가포르의 녹색화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로에도 나물을 심을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공사 허가가 나오게 된다. 정부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어 많은 공원이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주거지역 주변과 도시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장기적인 상위계획의 수립은 도시 재개발청(URA)이 담당하고 있다



싱가폴의 파크커넥트는 주요한 공원, 녹지와 도시내 여러 장소들과 자연보호지역, 오픈 스페이스 등을 연결하는 다목적 그린웨이를 의미한다 이는 좁은 대지 면적내에서 최대의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장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파크 커넥트는 그린웨이와 함께 조깅과 자전거를 위한 트랙을 가지고 있으며, 가로와 배수 유보지 주택개발원(HDB)소유의 토지, 싱가포르 도시철도인 MRT 고가 아래의 좁은 길을 따라 조성된다

파크 커넥트는 통행과 레크레이션 역할과 함께 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되어 생물의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열대기



후에 속한 생활공간 주변에 계획된 파크 커넥트의 종경 공간이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시원 공간을 제공해 주며, 동 식물에게는 서식처를 제공하거나 먹이를 찾거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싱가폴은 도시 전체의 비전을 갖는 컨셉터 플랜과 장소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아이덴티티 계획, 공원 녹지 및 수변공간 계획을 통한 법정계획인 마스트플랜이 만들어 진다



마스트플랜에 따라 상위계획들과 통합적으로 연계된 그린웨이 계획인 파크커넥트 네트워크 계획이 구체화 된다. 이에 따라 22개의 세부 구간으로 나뉘며, 세부 구간들이 만나서 8개 루프 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그린웨이 네트워크가 실현된다

□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은 도시개발청(URA)이 철저하게 계산, 예측하여 만들어진 도시계획 작품으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71년부터 시작된 10년 단위의 컨셉플랜과 매 5년마다 이뤄지는 마스트 플랜이 기본으로 추진되며,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50년 후의 경제상황과 인구, 수송문제 등을 고려해 10년 단위의 토지이용 원칙을 세우고 5년마다 실제 운용을 점검한다



컨셉플랜과 마스트플랜은 건설부와 URA를 주축으로 정부 각 기구 대표자들과 함께 모여 마련된다. 현재의 마리나 베이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인구만이 아니라 관광객 추이, 첨단산업 부지, 새로 부상하는 분야 등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되어 계획에 반영된다.

이때 스카이라인 즉 건물의 높이는 다른 건물 주변 환경과 연계되어 미리 정해진다. 실제 건물신축 단계에 들어가면 URA 직원들은 빌딩 소유주나 개발자들과 함께 디자인이나 주변환경과의 관련 등 ‘스토리’를 갖도록 함께 머리를 맞댄다. 그래서 URA 지구인들은 스스로를 싱가포르의 건물과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기도 한다.싱가폴은 많은 고층건물들이 솟아 있지만 건물들은 각각 개성있고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한 단지내의 아파트 건물조차도 모두가 다른 외관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거나 번잡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함속에서도 전체적인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주거문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리나베이 주변의 고층건물과 수변공원 주변의 시설물(의자, 조형물, 다리 등)야간 경관의 조화는 보는 이에게 탄성이 나올만큼 화려하고 현란한 빛의 마술을 펼쳐 놓아 한번 찾은 사람은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 같은 디자인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불가

신축건축물에 대한 감리단의 엄격한 검사로 부실 건축물의 사전 발생예방 건축법규로 도심내 간판을 내걸수 없어 도시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미지 형성 옥상 공원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의 감소 및 단열효과에 따른 냉방에너지를 절약하고 공기정화 및 도시 열섬화 방지효과를 누리고 있다

4. 연수결과

1 연수결과 보고서(총괄)

I 연수는 철저한 준비부터..

제 6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맞이 하는 만큼 금번 연수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제도를 보고 배운다는 큰 기대와 의욕 속에 출발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연수지역, 연수방향 설정을 위해 공무국외연수 심사 위원들과 심사 전 사전간담회를 거쳐 연수일정을 새로 조정 하는 등 사전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거기다 연수기간 중 의원들도 공식기관 방문에다 특별 시찰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팀별, 전체모임을 통하여 이국에서의 색다른 경험과 비교시찰에 대해 토론하고, 또 다음 일정을 점검 하면서 선진 행정과 선진 시설물을 우리 구정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다 하지만 금번 연수를 통해 많은 고민과 함께 새로운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되었다

II 내실있는 정책성 의원연수 추진..

잘 알고 있다시피 홍콩과 싱가폴은 우리 부산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도시 국가이다 공항, 항구, 황금 알을 낳는 산업을 찾아 유치하고 오랜 기간동안 노력으로 이룩한 항만 물류산업, IT첨단산업, 먹을 물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물을 수입하여 깨끗이 정제하여 다시 수출하는 나라의 물정책, 공무원이란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임을 자부하는 행정전문가, 정책을 개편하여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없는 도시거리, 공원, 천연자원이 없으면서도 최고의 정유정제시설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홍콩, 싱가폴이었다.

이들 나라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점은 먼저 근면,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선진국이구나! 하는 느낌과 도로, 항만, 고층빌딩을 이용한 야간조명 시설로 해외투자를 유치 하여 소득을 올리는 계획은 우리가 본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시설과 주변의 환경을 잘 조화시켜서 문화의 혜택을 한번더 느낄수 있는 계획은 당장 우리구에서 본받아야 할 숙제이며, 또한 홍콩의 모든 공사발주는 수의계약이 없으며, 거리에는 맨홀이 보도블럭과 높이가 같아서 보행에 큰 도움이 되며 도시미관에도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안전예방에는 정말 놀랐다. 고층건물 중간부분에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1개층 전체를 빈 공간으로 해놓고 화재 등을 고려, 상하를 분리하는 정책은, 요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는 우리 해운대도 반드시 본받아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리고 홍콩 노인복지부와 사회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정책도 마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개발에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도 돋보였다



이처럼 홍콩은 노인을 위한 복지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자원봉사자와 경찰과 병원이 함께 연계하여 노인환자를 빠른 시간내에 돌볼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구도 독거노인이 많은 실상으로 홍콩과 같은 노인복지를 위한 자원봉사자와 경찰과 병원이 연계되는 시스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이었다. 작은 나라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곳이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의 주택 보급율은 110%가 넘고 국민의 85% 이상이 정부가 공급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정부는 집값의 대부분을 저리 용자로 해결해 주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교통은 홍콩과 유사하게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자동차 구입 가격이 고가이며 유류가격 역시 인근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2-3배정도 비싸며, 이로 인해 주말 말레이시아에 가서 유류를 구입하는 여행객들이 많으며, 정부에서는 자국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할 때 2/3정도의 유류가 채워져 있도록 규제한다고 한다. 작은 규율하나도 지키고 따르는 싱가포르 국민성을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앞좌석 및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적발되면 싱\$1,000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이 과해 지는 등 도로교통법이 엄격하다.

이처럼 도시국가인 싱가폴은 자동차 운행과 관리에 철저한 계획과 규제를 실천하고 있었는데, 우리 해운대도 예외없이 자동차 주차문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물결모양 황색차선은 잠시 주차를 허용하는 표시이며, 좁은 길에도 꼭 주차해야할 곳에는 장기주차, 임시주차 가능여

부를 선으로 표시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우리 해운대의 재래시장이나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무조건적 단속으로 주민불만을 야기시키기보다,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쳐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2009년 5월 1일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관광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태국과 함께 의료관광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이다. 2003년 우리나라 삼쌍둥이 사랑 지혜양의 분리 수술로 유명해진 래플즈 병원(Raffles Hospital)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의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한다. 이 병원은 2001년에 설립해 380병상 규모의 중간급 병원이지만 24시간 외래 진료와 함께 국제 진료소를 갖추고 있으며 병원이라기 보다 헬스케어 전문호텔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의 완벽한 통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변 동남아 국가를 비롯 멀리 러시아에서도 이곳을 찾고 있다.

국공립 병원이 싼값에 환자들을 치료한다면 래플즈와 같은 사립병원은 비싼 만큼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병을 완전히 치료한후 싱가포르를 즐기고 쇼핑으로 관광수입까지 늘리고 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뉴욕 메모리얼 등 세계정상급 병원과 교류를 갖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언론,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탁월한 마케팅 덕분에 의료관광을 통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부산에서도 의료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백병원 등을 유치한 우리 해운대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 수익창출을 위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일반주거시설에 노인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없애고, 그들을 일반인과 같이 대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조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보다나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약자

를 돕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Ⅲ 나오면서..

아무튼 이번연수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도시의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들을 직접 보고 배워 의원 개개인의 견문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수가 된 것 같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얻은 것 중 먼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것은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철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전학습과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을 보고 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또 이를 위한 자료수집, 의원간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팀별간 사전 모임도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 계기가 된 것 같다



또 연수 안내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역 여행사를 통해 왔으나 이런 여행사는 관광여행밖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국외연수라는 목적에 맞는 안내를 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물론 우리구의 경우에는 수년전부터 자체적으로 대사관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기관을 섭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똑 같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행사를 통한 현지의 단순한 안내 가이드보다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알고 있다시피 코디네이트란 단순 통역과는 틀리다. 일단 한국의 행정 정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중에, 행정 정치 사회를 전공하는 유학생이나 현지 교포중에 관련 전문가들을 찾을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도 여행사나 아니면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차후 연수시에는 사전에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수 중 의원들의 공통된 불만중에 하나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 피곤할 뿐 아니라 계획된 기관 방문 일정도 백화점식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반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불만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홍콩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복지부와 사회복지부등 행정기관을 먼저 방문,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간담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인정책에 대한 사전지식을 확보 한 뒤 노인요양시설 방문을 함으로서 이론과 현장을 함께 다뤄보는 성과를 얻을수 있었다. 앞으로도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형식적인 연수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을 내서라도 집중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매년 국외연수를 준비할 때마다 올해는 어딜가자?라는 기본적인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보거나 알고 있는 여행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도 우리 의회는 45년전부터 국제교류재단(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타 자치단체나 중앙기관의 연수정보를 사전에 확보 연수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지만 이곳은 대부분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얻을수 있는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구군의장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의 연수결과를 모두 게재하도록 하면, 아마도 연간 수백개의 기록들이 쌓이게 될것이고 이를 통해 국외연수 아이디어는 물론 연수도시 선정, 방향도 참고로 할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회간 정보공유를 위해 전국 시구군의장단협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연수 방을 개설하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므로 이를 건의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운대구가 올바르게 창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수결과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개인별 연수결과 보고서

연수 보고서

의장 라외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선진도시의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들을 직접 보고 배워 의원 개개인의 견문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던 금번 홍콩, 싱가포르 의원 연수는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칠 좋은 토양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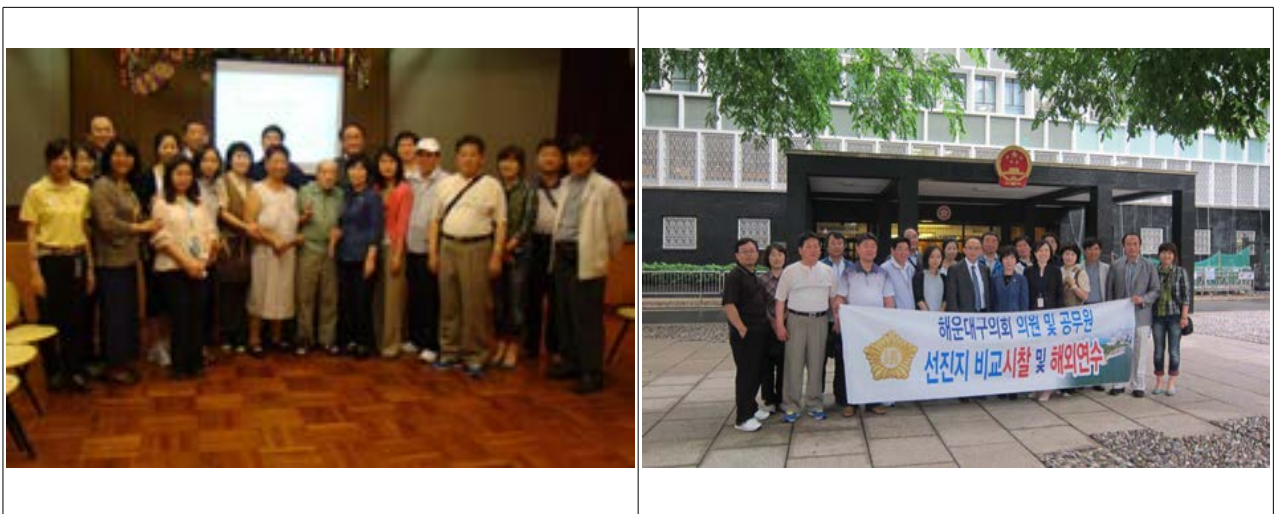


먼저 금번 연수를 통해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것은 연수에 대한 철저한 목적의식과, 이를 위한 사전학습과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의원들 스스로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을 보고 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또 이를 위한

자료수집, 의원간 정보 교류는 물론, 각 팀별간 사전 모임도 꼭필요함을 새삼 느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수가 아니었나 생각 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들 불만중 하나가 기관방문 등 연수 일정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피곤만 가중하지 실질적인 정책반영에 도움

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홍콩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부와 사회복지부 등 행정기관을 먼저 방문,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간담회를 통해 노인정책에 대한 사전지식을 확보 한 뒤 시설을 방문 함으로서 이론과 현장을 함께 다뤄보는 성과를 얻을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박 겉핥기식 형식적인 연수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매년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올 해는 어딜가지? 라는 기본적인 행선지 선정은 대개 인터넷을 뒤져 보거나 알고 있는 여행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도 우리 의회의 경우는 5대때 부터 국제교류화 재단(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타 자치단체나 중앙기관의 연수정보를 사전에 확보 연수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지만 이곳은 대부분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얻을수 있는 것 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구군의장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의 연수결과를 모두 게재하도록 하면, 아마도 연간 수백개의 기록들이 쌓이게 될것이고 이를 통해 국외연수 아이디어는 물론 연수도시 선정, 방향도 참고로 할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회간 정보공유를 위해 전국 시구군의장단협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연수 방을 개설하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므로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를 거쳐 전국 구·군의장협의회에 건의할 생각이다

아무쪼록 금번 홍콩,싱가폴의 우수시책과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우리 의원들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구정을 위한 좀더 나은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수 보고서

구의원 이상기

금번 홍콩,싱가폴 4박 6일의 연수 일정은 빡빡했다. 먼저 도착한 곳이 홍콩공항이었는데 신공항 건설로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도시임을 실감나게 했다.공항을 약간 벗어나니 항만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아시아 물동량의 70%를 차지하고 또한 세계 최대라고 했다. 이 항만을 경유하면 물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고 했다. 아파트는 초고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고 녹지공간은 많이 확보된 편이었다. GNP에 비해 물가가 싸고 국민성은 검소, 근면, 절약이 생활화 되어 있단다. 노인복지부에 이어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시설의 어른들은 참 편안해보였다. 다양한 기능의 물리치료실, 색깔로 각층을 구분하고 과일, 꽃 등의 벽화로 감각기능을 일깨우고 서예, 체조, 춤, 장기 등의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었다. 대상자는 신체 기능이 활발치 않는 65세 이상 입소할 수 있고 입원과 일일이용 등 자유 선택 할 수 있단다.



정부지원과 개인부담 2종류가 있는데 정부지원 입소는 까다롭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3년치가 대기하고 있다고...... 손목시계 모양의 위치추적기, 안전센서,스크린체크 등은 환자의 일

거수일투족 안전 체크가 항시 이루어지고 병상의료기, 침대, 전등, 매트리스 등은 인체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 설계라고 했다.복지관 내부에는 특수설계 이동식 보조기, 면역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침상하나까지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만큼 세심한 배려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눈길을 끌었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서울 크기만 하고, 인구 450만으로 국토 이용률이 매우 효율적이고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도서관이 많고 남녀노소 고루 이용하고 있었다. 국립도서관중 어린이 도서관 내부의 좌석배치가 의자 혹은 바닥, 매트리스 등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어 내 집같이 편안함을 주는 듯 했다. 특히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모습이 활기차고 아름다웠다.



싱가포르의 국회는 소박하고 검소했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장관을 겸하고 있고 국가를 위한 봉사 정신이 투철 하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이지만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껌이 없는 나라 정원의 도시, 태형 제도가 존속하고 철저한 벌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성은 온순하고 국가의 정책을 신뢰한다고 했다.

인공섬인 센토사 섬은 바다 한복판에 쇠파이프 기둥을 세워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었다. 섬내부는 야자수 등이 어우러져 정글을 이루고 관광객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바다에는 유조선들이 많이 떠 있었는데 석유 정제 산업이 활발하다고 했다. 육지가 좁으니 바다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노인복지, 도로, 관광, 환경 등 여러 분야를 비교 분석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수의 기회를 주신 해운대구민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

연수 보고서

구의원 홍성운

홍콩은 서울의 약 1.8배 크기의 아주 작은 나라다

전체면적은 1,091km²로 구룡반도와 신계지, 홍콩섬을 포함하여 235개의 외곽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콩에는 AIA 생명본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 기업 본사와 금융업계 아시아 본사도 대부분 홍콩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 제조공장이 별로 없는 홍콩에서는 실업률은 1%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직장을 구하기 쉬우며 대부분 월급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한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달에 150만원 이상 받을수 있다고 하니 성실 하기만하면 돈을 벌수 있는 나라인 반면 물가가 비싸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높은 월세와 교육비로 지출 비용도 많다고 한다



홍콩국민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경 퇴근한다. 오전 출근시간이 한국에 비해 늦은 이유는 아침에 외식을 하고 출근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다고 한다.

홍콩은 집세가 워낙

비싸 5평의 아파트에 4가족이 사는 경우도 많고 16평에서 24평 공간에서 3대가 모여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집구조가 좁으니 주방이 없는 가정도 많고 한국에 비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기보다는 외식이 일상화 되어 있단다.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홍콩 사람은 성미 급한 한국사람이 좀 길다고 느껴질 정도로 식사시간이 긴편 이다

홍콩은 섬사람답게 가는 곳마다 바다를 볼 수 있는데 고층빌딩과 바다가 어우러져 색다른 홍콩만의 이국적인 풍경을 느끼게 한다

홍콩에는 건물 대부분이 고층 빌딩이며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건물이고 그 위부터는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홍콩 야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고층빌딩이 많고 조면과 네온싸인이 화려한 것이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로 보인다. 나도 홍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어나고 물어보면 야경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것 같다.



야경이 아름다운 홍콩을 이루는 빌딩. 밤에는 탄성을 자아낼만큼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하지만 낮에 자세히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 홍콩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일조권을 고려하여 지어진 건물보다 좁은 땅에 최대한 많은 빌딩을 짓다보니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외벽이 깨끗하지 않거나 허름한 건물도 제법 많은데 홍콩에서 재건축은 지어진지 50년이 지나야 허가가 나오며 워낙 습기가 만항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도 금방 벗겨지고 외벽칠의 수명이 그리 오래 가진 않는다고 한다. 홍콩 대부분 도로는 1차선이나 2차선인데 교통체증은 별로 못 느꼈다. 자가운전보다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홍콩에서 자가운전을 할 경우에는 고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기에 대부분은 버스나 택시,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한다. 홍콩의 버스는 2층 버스가 대부분 트램이라는 전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트램 또한 2층 전차다. 실제로 트램과 2층버스 지하철을 타보면 한국의 지하철, 버스에 비해 천장도 낮은편이고 규모도 약간 작은편이다. 고층빌딩과 2층 버스 그리고 1차선 도로이지만 교통체증이 그리 없다는 점은 작은 나라 홍콩의 지형적 조건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온 증거로 보인다. 노인복지 문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65세가 되는 해부터 과일값이란 명목으로 1인당 100불씩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1국가 2체제, 쇼핑천국, 야경이 아름다운 나라 홍콩은 중국에서 느낀 느낌과는 사뭇 달랐으며 우리나라가 본 받을점이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다

연수 보고서

의원 이 안 호

금번 홍콩 싱가포르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 오면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각인되거나 느낀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싱가포르의 주룽새 공원의 경우는 컬러풀한 잉꼬, 펭귄, 바다오리 등 약 6백종 8천마리 이상의 새들이 석식하는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새를 사육하고 있으며 최신식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공원의 모든 지역을 지나며 각 박물관의 다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특히 매시간 각종 새들의 쇼와 묘기를 펼치는 올스타 버드쇼는 관중들에게 재미를 더해주는 인기 코스 였다. 새들이 자전거를 타는 쇼를 보여주었는데 만약 내가 이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믿지 않았었을 것 같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할 동물과 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이곳 관람석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새들의 오락경기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접할수 도 있었다. 원형의 저수지에서 홍학, 코뿔새, 다양한 종류의 앵무새가 함께 노니는 경이로운 모습은 특히 아름다웠다. 또한 남극처럼 설계한 펭귄천국 지역은 5종 200여마리 펭귄의 보금자리도 있었고 잉카 제비갈매기와 바다오리와 같은 50종의 다른 해상조류들이 있었다. 해운대가 전국 최고의 관광지인 만큼 아쿠아리움과 더불어 조류공원도 하나쯤 있으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수 있고 지역민들에게도 명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거리는 휴진 한 장없이 깨끗한 거리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한명 없다. 참으로 부러운 곳이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 청정도시가 된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리고 야경도 싱가포르 역사의 발상지인 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면서 유럽풍 카페 거리의 모습과 금융중심지, 휘황 찬란한 교각등의 멋진 야경을 보았다. 싱가포르의 강 어귀에도 머라이언 동상이

물을 뿜고 있었다.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장관이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76%가량이 중국인이므로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이주정책에 의해서 각 민족들이 분산된 현재에 와서는 초기 중국 이주민들의 상점과 시장 모습을 보호,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이곳 차이나타운이 유일하다. 도시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 버렸다고 하나 여전히 중국인들 특유의 활기는 느낄수 있는곳이었다. 이 거리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다양한 한약재, 전통 수공예품, 도자기, 칠기 등의 상점들의 늘어서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중국식품과 차 등을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다. 우리 해운대도 앞으로 해운대 역사부지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세계 음식백화점, 전통식품, 수공예품 판매장 등)을 만든다면 큰 호응을 얻을수 있을 것 같다..

연수 보고서

의원 윤병주,이명원,심형균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전통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유통법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SSM도 대기업의 지분이 51%를 넘으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생법이 통과되었다.

우리 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여 SSM을 규제함으로써 전통재래시장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SSM과 재래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같은 유럽의 WTO 회원국들은 도시 계획이나 노동 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마트를 개설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는 매장을 추가 개설하려면 지자체의 영업허가가 받아야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전통재래시장을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SSM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구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했다.

연수기간 동안 방문했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SSM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 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나, 우리 해운대구의의회 의원 국외 공무연수 기간 동

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연수 첫날 방문했던 홍콩의 재래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미관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농수산물과 음식료품 등 1차 식품군이 주종을 이루는 품목으로 점포가 배치된 재래시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생선 비린내와 열대과일 등 익숙하지 않은 혼합된 향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맞은편 건물에는 옥을 가공하는 옥시장이었는데 흥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적정가격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는 안되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구매를 할 수 없었다.

주차장 확보, 환경정비, 접근성 제고 등과 고객의 쇼핑편의를 위한 점포의 배치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환경개선은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통재래시장의 이러한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SSM과 전통재래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정책 지원이 없이는 요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구에서도 전통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을 알리는 간판 제작 및 정비사업과 아케이드 제작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비확보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원에 비해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실적이 미미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및 전통재래시장별로 차별화된 지원 등 좀 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전통재래시장은 활성화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SSM과 전통재래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위하여는 규제일변도의 부정적 정책보다는 재래시장의 상권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긍정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자 한다.

연수 보고서

구의원 이상희

<홍콩>

홍콩하면 화려한 야경이 떠오른다. 홍콩에 머무는 내내 비가 내려서 멋진 야경은 아니지만 나름 비오는 날의 야경을 관람하였다.

○ 옹핑빌리지

케이블을 타고 옹핑빌리지로 가는 도중 산 넘어 청동좌불상이 보였다. 그것은 1993년에 완성된 세계 최대의 좌불로 제작기간만 10년에 이르며 높이 26m, 무게 202톤의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였다. 이 불상은 중국에서 5대 불상 중의 하나이고 석굴암 본존불보다 높지만, 그보다 오래된 것은 아니었다. 케이블카는 장장 5.7km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25분 동안 타고 올라갔다. 서울 남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의 운행 길이가 불과 63m, 운행시간이 2분 30초인걸 고려하면 상당한 긴 편이다. 옹핑빌리지에 도착하니 소림 무술인이 나와서 쿵후시범을 보였다. 화려하고 놀라운 무술시범에 관중들이 모여서 배우기도 하였다. 이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체험놀이를 좋아했다. 268계단을 올라가서야 청동좌불상을 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불상은 훨씬 컸다.

○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다양한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중에서 신청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주는 노인서비스 표준보호욕구사정제(scnames)를 2000년부터 실시하였다. 노인복지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상,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시해주고 또한 이 중에서 선택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욕구사정제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싱가포르>

시내로 진입하면서 ‘정리정돈’ ‘깨끗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관광객이 이민국을 통과할 때 껌은 압수품목일 뿐만아니라 마트에서조차 껌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 ‘정리정돈’ ‘깨끗함’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물에는 간판 하나 없다. 마케팅 프로모션은 하지 않는다는 건가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전날 머물렀던 화려한 홍콩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 머라이언공원

머라이언상은 머리는 사자이고 몸은 물고기인 상이고 싱가포르 도시의 상징이라고 한다. 머라이언상을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 때문에 이 공원은 인기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썸지공원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머라이언의 입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옛날 수마트라 왕자가 새로운 영토를 찾아 이곳에 당도했을 때 흰 갈기를 든 사자를 보고 '사자의 도읍'이라고 이름지었다는 전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밤에 하얀색 머라이언상이 조명을 받으며 검은 바다 위에 서 있는 모습은 매우 낭만적이다.

○ 마리내베이샌즈 호텔 하늘정원

호텔 외관이 참 독특했다. 빌딩 3개에 위에 큰 배를 얻은 광경이라고나 할까. 정말 장관이었다. 하늘 정원에 올라가니 야외 풀, 즐비한 야자수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바라보니 마치 휴양지에 온 듯했다. 안타깝게도 풀 근처에는 투숙객만이 접근 할 수 있다고 하니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한 눈에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아래를 바라보니 건물이 흔들렸다. 눈앞이 아찔했지만 정상이라고 한다. 곳곳에서 도시개발을 진행되고 있었다. 향후 3-4년 후면 도시의 모습이 더 많이 변할 것이라고 한다.

○ 주룽새공원

600여종 이상, 7000마리 이상의 새들이 우리를 반겼다. 매우 뜨겁고, 습한 날씨로 인해 오래 걷을 수 가 없어 트램열차로 이동하였다. 홍학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육장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특히 맹금류 사육장에서의 새 쇼는 단연 볼거리였다. 동물탈을 쓰고 인사하는 사람들과 형형색색의 앵무새들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30분간 진행된 새쇼는 아이들에게 새와 함께 체험놀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열광시켰다. 그 열광은 곧 성인들에게 전달되어 모두를 몰입시켰다. 쇼 도중에 아이들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권하면서도 매끄럽게 진행을 하였다. 쇼가 마치자 아이들은 다양한 프로모션 상품을 사기 위해 줄을 지었다.

○ 클라키

강변을 따라 즐비하게 서있는 먹거리상점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저절로 맥주한잔이 마시고 싶어지는 거리다. 우리나라의 이태원 아니 홍대 신촌과 같은 분위기라고나 할까. 주변 건물은 원래 백년이 넘는 부두 창고였다고 한다. 작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도시재생에 성공하여 다양한 상점이 들어섰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먹거리 축제가 열렸다. 리버보트에서 머라이언, 에스플러네이드, 식민지풍의 정부종합청사와 특이하고 가벼운 장식이 달린 거대한 다리와 도시의 지평선을 점령한 현대 고층 건물들을 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황홀 그 자체였다.

○ URA

입구에 ‘삼수이’ 여자동상이 있었다. 삼수이는 1821년 싱가포르 초창기 건설에 참여한 중국의 노무여성이라고 한다. 마치 물동이를 양쪽 지게에 지고 걸어가는 고단한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한 부산 피난민들을 생각나게 하는 빛바랜 동상모습이었다. URA는 싱가포르 전역 건축물을 관할하고 인가와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 우리의 구청건축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5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 모양이 다른 건물과 같아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2층에 올라가니 동영상실, 지형도, 전광판, 역사관, 시물레이션관, 자료실 등이 있었다. 2층 중앙홀에는 대형 조감도가 과학적이고 치밀한 입체도형으로 자리를 차지하였다. 실제 건물과 똑같은 형상을 축소하여 조감도를 만든 이곳!야말로 녹색정원도시임을 다시한번 느꼈다.

연수보고서

구의원 정성철

홍콩,싱가폴 연수 시에 주민의 가까이 있으면서 편의성 도모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도시나 시골 지역이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리의 가로등 문제입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은 주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앞으로는 꼭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가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고 관광객 수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면 무시해서는 안 될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비교 사진을 싣고 싶습니다만 누구나 상상하고 옆에서 보듯 우리의 가로등은 단지 거리를 밝혀주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정말 괜찮네라고 생각이드는 곳도 몇 곳 있지만 말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교하면 실용성이나 주변환경에 대한 디자인등에서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가로등은 차후로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의 사진은 단순히 몇 곳을 들린 사진이라 전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올려보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가로등 시설

간접조명으로 홍콩의 스타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비추는 가로등형태입니다.





- 다리 경관에 맞춘 조명시설













수십가지의 다양한 가로등으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끔 디자인되고 실용적인 곳은 극히 단순하게 디자인해서 실생활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지의 특색에 맞게 공공건물은 또 다른 주변의 환경에 맞게 디자인 된 것을 보듯 우리구도 가로등 하나라도 제일 큰 목적은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주변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활과 또 하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버스 승강장에 대한 문제와 거리에 주민의 발과 몸을 잠시 쉬게 하는 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스 승강장이라 함은 단순히 버스 노선 표지판 하나만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며 승객들에게 버스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몇몇 승강장 시설의 사진을 첨부해봅니다.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모두 갖추어야 제대로 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버스 승강장의 일부이겠지만 대부분이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디자인 또한 주변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각에서 접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의 설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벤치가 어디에 있어야하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는 훨씬 지났음에도 우리 주변의 벤치 시설은 있어야 할 곳에는 없는 곳, 없어도 될 장소 같은데 있는 곳 그리고 한지역의 벤치시설은 단순히 한가지 디자인만을 고집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와 비용문제를 수반하겠지만 실용성 있는 디자인 적재적소의 배치 등 여러 가지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제법 있는 듯 합니다.

먼저 사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양쪽 화단에 놓여진 벤치시설
입니다



◀ 거리 중간중간 화단벤치 입니다.





▲ 편의성이나 주민의 안락함을 배려한 실내 각종 구조물입니다.



어린이를 배려한 시설물입니다 ▶



작은 시설 하나라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편의성과 주변환경에 맞추어 시설을 설치하는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 주변을 벤치마킹하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것입니다.

5. 구정접목 사례

1 나루공원을 영화의 거리로 조성



홍콩 [침사초이](#)[尖沙咀] 바닷가를 따라 난 해안 [산책로](#)에 '헐리우드 스타의 거리(Hollywood Walk of Fame)'를 모델로 하여 [조성한](#) 거리이다. 리렌제(이연걸), 홍진바오(홍금보), 린칭샤(임청하), 량차오웨이(양조위), [우유센](#)(오우삼), 수커(서극) 등 국내에서도 친숙한 홍콩 스타들의 손도장과 사인이 찍힌 명판(名板)을 구경할 수 있다.

2003년 준비를 시작하여 60억 원을 들인 끝에 2004년 4월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규모는 너비 4~5m, 길이 440m로 9개의 붉은 기둥에 [홍콩영화](#)



100년사(史)를 기록해 놓았다. 관광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바닥에 새겨진 스타들의 명판이다.

2005년 현재 총 73명의 영화인의 명판이 박혀 있는데, 손도장이나 사인이 찍힌 것보다는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이 더 많다. 거리를 조성하던

2004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영화 촬영 현장을 재현한 가상 세트, [실물 크기](#)의 리샤오룽([이소룡](#)) 동상, [영화 포스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 구정접목 방안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 개관 과 함께 해운대가 명실상부한 영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금번에 개관하는 영화의 전당 주변은 신세계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문화관광인프라에다 수영장과 나우누리 공원 등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홍콩의 스타거리, 낭만의 거리처럼 스타의 손도장, 명판은 물론이고 영화의 거리를 상징할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면, 인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영화타운 조성으로 영화인은 물론 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 거양 가능



2 주변과 조화된 가로등 설치



▷ 가로등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특징 있게 설치



▷ 간접조명으로 홍콩의 스타거리를 아름답게 비추는 가로등형태



▷ 다리 경관에 맞춘 조명시설

▶ 구정점목 방안

현재 가로등은 단지 거리를 밝히는 기능이 대부분, 물론 요즘은 주변과

연계심플한 디자인을 한 가로등도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용성이 나 디자인 면에서 부족한 실정임. 앞으로 새로이 설치 하는 가로등은 상기 그림과 같이

주변의 여건을 최대한 감안, 안전성은 물론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여 새로운 볼거리 문화 창조 필요

3 품격있는 명물 야외 카페촌 조성

싱가폴의 클락키는 19C기 까지 크고 작은 상점들과 60여 개의 창고가 자리한 싱가포르 강변의 부두였으나 이곳의 창고와 상점을 바꾸어 새롭게 디자인, 현재는 2백여개의 식당, 바, 클럽, 골동품가게, 기념품 가게 등이 모여 있는 싱가포르 최대의 오락 유흥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알록달록한 색색의 야간조명을 점등 해 밤의 또 다른 클락키의 모습으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수변공원 주변으로 싱가포르 강을 따라 유람선을 운행하여 관광수입을 높이고 강에 따라 독특한 싱가포르 문화를 형성하여 관광객이 보고 느낄수 있는 문화 관광벨트를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클락키 주변 전경

▶ 구정접목 방안

탁 트인 바닷가, 광주변의 고급 아파트 촌, 이와 함께 어우러져 마린시티 내 동백섬 맞은편 주변 레스토랑(식당)들이 가게 앞을 개조,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보기에도 여유있고 낭만적이며 보행에도 불편하지 않으므로 명품 야외 카페촌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새로운

명물 카페촌 조성 가능, 물론 범 테두리내에서 개별적, 무분별하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지역 상인연합회 등에서 주관,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백섬, 수영강의 해양레저기지와 연계 유람선이나 요트 운행 등 관광객이 직접 먹고, 보고 느낄수 있는 문화 관광 벨트 조성 검토 필요



4 재래시장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홍콩과 싱가포르에는 노점상이 많고, 야시장도 활성화되어 관광코스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 주말 클라크거리 다리위 차량통행을 막고 야시장 음식축제 현장

▶ 구정접목 방안

우리구 전통 재래시장인 해운대시장과 구남로를 연계, 월 1회정도 주말에

는 차없는 거리로 운영, 야시장 페스티벌 등 노점상 특화구역으로 설정 운영 야시장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운대해수욕장, 온천, 구남로 등과 어우러지는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홍콩,재래시장 등의 야시장 풍경

▷싱가폴 클락키 거리 노점상

6. 행정사항

1 정책연수 보고서 작성

- 작성기간 : 2011. 7.18~7.25
- 작성자 : 라외순 의장 외 13인(작성보조 : 사무국 직원)
- 보고서 검토 및 확정 : 2011. 7. 27

2 제반 시책에 대한 후속 조치

- 의정활동 자료활용 : 전의원
- 홈페이지 게재 등